



# 時計塔

SIGETOP



2017년 4월 20일 발행

서울大學教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4권 2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발행인: 李健一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金靜雅 李善姬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34차 연례 학술대회 성황리 마쳐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주관 34차 Annual Medical Convention이 지난 3월 1일부터 5일까지 Pacific Palms Resort, City of Industry, California, USA에서 130명의 미주 회원과 15명의 한국회원을 포함하여 배우자를 합하여 총 250명의 참가로 성황을 이루며 개최되었다. 이견일(68년 졸업)회장과 변영석, 김성환, 최철, 김명원, 신홍식, 송창호, 홍광신, 윤병인, 이현령 등으로 이루어진 회장단의 많은 노력으로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모교 강대희 의과대학장, 홍정용 서울의대 동창회장, 서창석 서울대학병원장, 박중신 부학장이 참석했고, Keynote 강사로 석학 조승열 교수가 초청되었고 내과학 이흥규 교수, 천문학과 홍승수 교수, 암전문으로 명성이 있는 김의신, 분당병원 외국인 진료부장 조중행, 오케스트라에 대한 명강의를 한 대니얼 석 음악가, 박승균 교수, 윤기철 박사, 최도빈 철학교수 등으로 이루어진 CME와 Non-CME program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아울러 미주동창회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젊은 세대의 참여가 있어서 행사가 더욱 활기를 띄었다.

골프대회, 관광 등이 전후로 이루어졌고 3, 4일에는 만찬과 회의와 여행을 함께 했으며 백승원(72년 입학) 박사의 명사회로 진행되었다. 노규상 부부, 백승원부부의 볼룸댄스는 모두의 인기를 끌었다. 조승열 교수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의 회장과 의학 전문지의 편집장)의 한국의학 연구기금과 기초의학 연구환경의 실체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적인 의학연구에 대한 지원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가 쓰게 된 Oxford Medical Textbook의 Parasitology Chapter에 올린 Cerebral Sparganosis에 대한 역학, 진단, 치료에 대한 강의가 흥미로웠다. 뱀을 잡아서 먹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질병은 놀랍게도 많은 한국사람들에게 있으며 특히 공수대 병사들, 약으로 뱀을 먹는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 병은 피부에 종양으로도 나타나지만 뇌에까지 침범하면 뇌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심각한 것이다. 지난 50년간 문헌과 그의 임상경험담을 알려주었다.

이와 같이 이번 행사에 음악, 문학, 미술, 과학, 철학 모든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여러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예술방면에 중점을 둔 회장단의 의도인 것도 성공적이었다. 한승신, 신규호, 이현령, 정영태 동문들이 주관한 Scientific CME program도 New Horizons in Medicine이라는 주제로 지난해에 이어서 Personalized Medicine, Imaging in Modern Medicine and Regenerative Medicine/Stem Cell Research 등 세 분야를 다루었다.

현재 미주에 거주하는 서울의대 동문은 아직도 1200명이 있지만 많은 분이 현재에서 은퇴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그 동문 중 주로 학계와 현직에 종사하는 젊은 동문들이 이 CME Program에 흥미를 갖고 참여했다. Credit Hour는 신규호 동문의 수고로 University of Buffalo, School of Medicine에서 담당했다. 지난 34년간 미주의대 동창회는 매해 열렸으며 작년에는 서윤석 전회장 주관으로 Washington DC, Virginia에서 있었고 내년에는 지난 한승신 차기회장에 의하여 Glenponte Marriott Hotel at Teaneck, New Jersey에서 6월 20일(수)부터 6월 24일(일)까지 있을 예정이다. 이 장소는 뉴욕 맨하탄과 인접하여 지난 2015년 32차 학술대회도 당시 서인석(73)회장의 주도하에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이 행사 이외도 우리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가 1974년부터 발행하는 한글 신문인 "시계탑"은 역사적으로 미주한국일보에 이어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한글 신문을 자랑한다. 또 이 학술대회 또한 지난 반세기 국내외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여 임상분야에는 물론 기초연구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지대함을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행사 중에 강대희 의과대학장은 금년도 미주함춘공로상 수상자로 노용면(55년 졸업, 전 시계탑 편집장, 10대 회장) 이회경(61년 졸업, 전 시계탑 편집장, 22대 회장) 정정수(62년 졸업, 31대 회장, 유모어 전문가) 동문들에게 전달했다. 이 상은 해마다 1명내지 3명의 북미주동창회에 공헌한 훌륭한 동문들에게 수여된다. 기사내용과 사진을 참고 하시기 바란다. (글 시계탑 편집인)

## 35th Annual Medical Convention

세계 문화의 중심 뉴욕 맨하탄과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메리웃 호텔에서  
제35차 북미주 동창회 학술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도 일정에 참고하시어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일시: 2018년 6월 20일(수)~24일(일)  
장소: Grenponte Marriott Hotel  
at Teaneck, New Jersey



Glenponte Marriott Hotel



# 2016-2017 제2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오후 4시30분  
 장소: Cherry Hill Room, Pacific Palms Resort, City of Industry, California  
 참석자: 이만택(58) 이희경(61) 송영두(62) 김택수(63) 김태웅(63) 노영일(68) 김명원(68) 윤병인(68) 이견일(68) 이현령(68) 최 철(68) 변영석(69) 김성환(71) 김일영(71) 이원택(71) 한승신(76) 김동훈(77)  
 Proxy: 허선행(64) 최준희(64) 한기현(63) 이명희(66) 최순채(66) 서윤석(68) 주광국(68) 이성춘(70) 강창홍(71) 조세진(71) 박찬호(72) 석창호(72) 남명호(81) 이선희(81) 강현석(00)

1. 참석자와 Proxy 점검 후 이견일 회장의 개회 선언이 있었음.
2. 지난 제1차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초록 낭독 후 수정없이 동의와 재정으로 통과하였음.
3. 이견일 회장의 인사 및 보고  
 참석하신 임원 및 이사들에게 감사드리고 3월 1일, 2일 Pre-Convention 골프대회를 예상 인원 보다 많은 참여로 대 성황리에 마침을 보고함.  
 그동안 임원 및 여러분 들의 치밀한 준비와 수고로 제34차 학술대회가 많은 미주와 한국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여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4. Reports from Committees with sequence of PPT Slides Presentation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Committee: Current Values as of 02/03/2017, \$251,568을 보고함.
  - Nominating Committee Report by Chair (서윤석/노영일): 2017년 6월 30일로 끝나는 열명의 이사 명단과 한명씩 결원이 된 2018년 6월 30일, 2019년 6월 30일로 끝나는 임기간 이사를 By-laws에 의하여 추천해 차기 대의원회(6월 하순)에서 인준 받게되 회장단이나 추천위원에게 연락 바람.
  - Publishing Committee Report by Chair(서윤석): 이번 1월호부터 시계탑은 16면을 color로 하고 있으며 많은 동문의 관심으로 질과 량이 향상되고 있음. 자매기관인 website 이용을 권장함. (snucmaaus.org)  
 다음 7월호에는 1년간의 작품을 기준으로 작품상 발표가 10월호에 있을 예정임. 농담골목의 유머 코너에 원작과 표절여부의 논란을 뒤로 하고, 이어지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나왔고, 원작에서 얻은 영감으로 새로운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원작을 인용 표시하며 새로운 작품을 낼수도 있다는 회의 결정이 나옴.
  - Charity Committee Report by Chair(최영자): 서면보고로 NYCOCO에 꾸준한 지원을 요청함.
  - Scientific Committee Report by Chair (한승신): 34차 학술대회의 CME program에 대한 주제 선택과 강사에 대한 소개가 있었음.
  - Scholarship Committee Report by Chair (오무연, 이선희): 서면 보고로 5명의 미주 SNUCMAA 장학생과 2명의 김태웅 미주장학생의 발표와 한국 본교의 10명 SNUCMAA 장학생(북미주동창회의 5명 지원과 서울 본교의 matching 5명 지원)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Green Project Committee Report by Chair(강현석): 서면 보고로 보다 많은 GP member의 학술대회 참여를 유도하려 노력 중이고, 동창회로 부터의 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호텔방 sharing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유도 중이라는 보고 임.
  - By Law Committee by Chair(문대욱): 서면 보고로 Standing committee가 된 Charity committee와 Silver Project committee에 대한 By Law에 들어갈 문구를 제시하여 동의와 제청을 얻음.

## 제3회 함춘공로상 노용면(55) 이희경(61) 정정수(62) 동문 수상

모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북미주동창회에 많은 공헌을 아끼지 않은 동문들에게 수여하는 함춘공로상은 노용면(55, 전 시계탑 편집장, 10대 회장) 이희경(61, 전 시계탑 편집장, 22대 회장) 정정수(62, 31대 회장) 동문들이 선정되었다.



## 제2차 남가주 65/66 학년 대항 친선 골프대회 - 66년 동기 우승

2017년 1월 30일 Royal Vista Golf Club, Walnut CA에서 거행된 65년과 66년 졸업 동기들 간의 친선을 위한 제2차 단체 골프대회에서 66년 동기가 지난해의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각 학년에서 8명씩 선발하여 총 16명이 각축을 벌이는 혈투의 연속으로 진행되었다. 행사후 옹가네 라는 한식당에서 회식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65년: 홍수용 최영인 채도경 채 진 김성수 김건언 이한중 전영균 \*이범석 (uncounted player), 66년: 곡일성 박용길 삼정섭 정상국 조관상 한동수 김의신 김용재 동문들이 참석, 여자부 65년 Mrs. 김성수 채도경 채진 김건언 홍수용 이한중 이범석 66년: Mrs. 박용길 등이 참석했다.



# 겸허한 자세로 종교음악을 해설하는, 최진훈 두 번째 수필집 <산을 향해 눈을 드니> 출간

서 랑 (69, 대뉴욕)



최진훈은 좀 유별난 사람이다. 그래서 나와 절친한 관계다. 시간이 아깝다며 골프를 치지 않는 것도 똑같지만, 초등학교 때 미술반을 같이했고, 둘 다 서울의대 오케스트라 멤버였고, 1980년도 중반에 여기 뉴욕에서 의사약단을 한담시고 키보드와 색소폰을 들고 길길이 날뛰던 적도 있다.  
 그는 일찌감치 교회음악에 뛰어들어 성가대 지휘를 했다. 기어코 줄리아드 스쿨에서 오케스트라 지휘를 공부하는 저 지레를 하더니만 1987년 이래로 뉴욕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토요일 저녁 모임 같은 데서도 다음날 아침에 성가대 연습이 있다면서 남들보다 훨씬 먼저 자리를 뜬다.  
 최진훈은 2004년에 '벽을 향한 소리'라는 수필집을 냈다. 올 2017년 초에 뉴욕 유니온 출판사에서 나온 두 번째 수필집 제목은 '산을 향해 눈을 드니'다. 그의 기본자세는 무엇을 '향(向)'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의 관심이 벽에서 산으로 돌려진 것이 의미심장하다. 벽이 맞받아치는 소리의 반향에 대한 섬세함을 접고 이제 그는 대담한 시선으로 먼 산을 바라본다. 이 타이틀은 캔서스 출신 'Allen Pote'가 작곡한 성가(聖歌), 성경 시편 121편의 첫 구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에서 따온 것이다. (73쪽) 산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에 경건하다.  
 나는 지도자의 권위보다 지휘자의 열정을 더 높이 평가한다. 지휘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퍼포먼스를 하지만 지도자는 장기집권을 노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곡의 해석방법을 소절소절 친절하게 설명한다. 성직자가 신을 칭송한 성경의 해석자라면 지휘자는 작곡자가 남긴 악보의 해설자다. 나 같은 시정잡배의 정신상태로 보면 둘 다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라는 느낌이다. 그러나 오케스트라를 힘차게 지휘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가 참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레고리안 찬트의 음산한 음률이 그림자처럼 하얀 성당의 벽을 스쳐가던 대학시절을 상기하면서 최진훈의 역사적 고찰을 읽는다. (178쪽) 그렇다. 이 책에서 그는 결코 시건방진 의사 티를 내지 않으면서 음악과 종교를 의기투합시켜 당신과 나의 신비한 영계(靈界)에 접근한다. 겸허한 굴신(屈身)의 자세로. -뉴욕 중앙일보 2017년 1월 17일 오피니언란의 <서평>에 실림



1964년, 대학시절 오른쪽 프렌치 혼 주자가 최진훈

## 최진훈(70) 수필집을 읽고

최진훈 댁께,  
 안녕하셨습니다, 최 댁. 또 세월이 한참 지난 것 같네요. 작년 뉴욕동기회에서 잠시 반갑게 뵈고 또 일년이 흐르고 만나 볼 기회는 물리적으로 지꾸 멀어지는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옛 중국의 唐詩 同心草와 우리 가곡의 가사중에도 담긴 애뜻한 丹青色 별리의 심정이 갑자기 연상이 되는군요.  
 보내주신 컬럼집 '산을 향해 눈을 드니' 반가이 받아 보았습니다. 특별하고 귀한 冊이어서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고퍘한 내과의사이시고 동시에 여러 번 카네기 홀에서 호평의 챔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기도한 명성을 일찍이 들은 바 있음에도, 이 수필집의 전반을 차지하는 성가곡의 설명과 최상의 협주를 위한 지휘자의 생생한 기록을 마주하며 다시 한 번 유익하고 고귀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첩터마다 담긴 깊은 노고와 정성에 공감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둡고 외롭던 겨울이 감동의 축복과 경건한 마음으로 며칠을 호사를 하고도 훈훈한 마음이 길게 남았습니다. 유튜브로 찾아가 들으며 珠玉같은 성가곡의 의미와 영혼의 울림을 다시 공부 하며 매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곡된 노래들과 사합를 손수 모두 지휘하셨다니 그 음악적 재능은 물론 그 배경의 정신적 순수성, 신앙심과 영혼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보냅니다. Trumpet fanfare로 시작되는 Handel의 Messiah는 물론 오래 전에 애청했던 Laudate Dominum, Palms, 그리고 잊었던 Panis Angelicus 등 어느 것 하나 없이 마음을 울립니다.  
 수련의 시절 그리고 아이들 대학 다니던 무렵이었지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뉴저지 턴파이크를 오고 가며 들던 곡들 중에 Bruch의 Kol Nidrei 그리고 Ravel과 Faure의 Pavane 등이 있었지요. 대개 자정이 넘는 시각 Newark를 지나 어두운 Elizabeth 구간을 달리며 삶의 무게에 눌려 상념에 젖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여러 편의 수필 또한 비할 바 없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절제된 문장과 반듯하게 맞물리는 내용의 흐름이 일품입니다. '잊지 못하는 두 식탁', '폭설의 추억' 등 명품 수필들입니다.  
 그리고 Dr. 이종성을 위한 弔辭는 마음 깊이 우러나는 애도와 인연의 신비, 우정의 아름다움을 격조있게 담고 있습니다. 언젠가 추운 겨울 뉴욕동창회 연회를 마치고 Dr.이가 그 부인과 함께 우리들을 초청하여 정성껏 대접하던 "국밥"의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늦게나마 그의 명복을 빕니다. 당시 그는 은퇴를 마약 시작할 때로 기억됩니다. 그 때가 또 옛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 失郷의 일생들이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本質의 세계를 향한 구도의 마음은 인생 末年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높은 산과 같은 존재이지요. 눈을 높히 들어 우리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늘 은혜만 입고 값질 못하는 마음 해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Mrs. 최께도 심심한 안부를 전하며 가내 두루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저희들 기도 드립니다. 만나볼 기회를 仰望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晚圃 (69) 드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김은태(52)동문 별세

뉴욕주 버팔로에 있는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에서 Pathologist로 오래동안 근무하다가 은퇴후 Burlington, VT로 이주하여 여생을 보내시던 김동문께서 향년 90세의 일기로 지난 1월 20일 별세하셨습니다.

#### 김정준(52)동문 부인 별세

김정준(52) 동문의 사모님께서 3월 8일 아침에 작고 하셨다는 소식을 동창회가 받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임종식(57)동문 부인 별세

지난 2월 말 Potomac, Maryland에 거주하시는 임종식(57)동문의 부인 Mary Lytle Rhim의 영결식이 있었다. 이 분은 6남매와 13명의 손자손녀를 두고 Winchester School, Silver Spring Maryland(1970년 설립)의 founder으로 활동하였고 또한 Dr. Rhim을 도와서 우리 미주 서울의대동창회에 기여한 바가 지대한 현모 양처이다. 버지니아 chapter 김진주 회장과 조병선 총무, 그리고 오인환 미주서울대학교 전 동창회장 등이 여러 동문들을 대신하여 이 분의 장례에 예의를 정중히 표현하였다. (글 서윤석)

#### 김기태(58)동문 별세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장을 역임하시며 동창회에 많은 공헌을 하신 김기태(58) 동문께서 별세하셨습니다.

#### 강상진(59)동문 부인 별세

강상진(59) 동문의 사모님께서 34차 LA 학술대회를 참석하시기 위하여 JFK 공항으로 가셨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하시고, 회복을 못하시어 지난 3월 1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 정인태(64)동문 별세

조지아 거주하시던 정인태(64)동문께서 지난 1월 22일 별세하셨습니다. 정동문께서는 시계탑에 아름다운 시를 기고하셨으며 지난호에 게재된 '흰 눈 쌓인 시골의 겨울밤'은 동문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 정인태(64) 동문을 보내면서



정인태(64)동문은 Savannah, Georgia에 있는 Georgia Regional Psychiatric Hospital에서 Medical Director로 오래동안 조용히 일하다가 소식도 없이 지난 1월 22일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동문은 경기 중고등 학교와 서울의대를 64년에 졸업하고 해군 복무후 도미하여 NY Downstate Medical Center 에서 소아과를 전공했고 Poughkeepsie, NY에서 몇년 개업하다가 Savannah, Georgia로 이주하여 30년 동안 정신과 병원에서 근무하고 일생을 서서히 마감하셨습니다.

중고등 학교부터 문학에 취미와 관심이 많아 그동안 여기 저기에 많은 글들을 써서 기고 하곤 하였고 항상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하고 그곳에 살고 싶어 현실과는 좀 떨어진 대화를 하곤하여 일반 동문들과 소통을 쉽게 할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근본이 착한 마음을 가진 하얀 얼굴의 노래도 잘하는 미남 청년으로 기억을 남긴 동문입니다.

거의 40년 동안 근처에 동기도 없는 멀리 떨어진 Savannah에 살면서 여행도 별로 많지는 않았지만 다른 주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끔 장시간 전화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곤 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기억이 새롭습니다.

부인에 의하면 지난 반년동안 장기능 저하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병원 가기를 싫어하였고 점점 쇠약해져서 결국 지난 1월 22일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동문은 그동안 기독교에 깊게 심취되어 있어 모든것을 하나님 뜻으로 믿는 글을 써서 동문들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자신도 하나님 뜻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하늘 나라로 떠난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동문들의 앞으로 남은 날도 오십보 백보 입니다. 하지만 정인태 동문은 너무 쉽게 떠나갔다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지금은 자신이 믿었던 천당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겠지요.

동문은 네명의 여식과 다섯 손자, 손녀가 멀지않은 곳에 있어 어머니을 잘 위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 동기 이흥표(64, 남가주)

### 시계탑 편집회 초록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일(토) 오후 1시 풍림식당 at New Jersey  
참석자: 노용면 이희경 허선행 서윤석 서량 한승신 김정아 박은경 황창근 Jamie Kim



개회 선언 후 재무보고가 있었으며 모교 대학병원 광고를 뒷면 전면에 게재키로 합의함. 다음 호에는 1/2면만 사용가능성을 예상하다. Website에 빠진 시계탑 중 노용면 소장의 2009년 1월호, 2010년 4월호, 10월호와 서인석 소장의 2010년 7월호, 2011년 10월호, 2014년 4월호 원본을 황사장이 File을 만들어 주광국 Website Chair에게 보내고 원본은 본인들에게 반환하도록 함. 노용면, 이희경, 정정수 세 분의 미주함춘공로상 수상자들의 수상소감을 간단히 올리도록 의견을 모음. 노용면 님의 수상기념촬영이 있었고(Mrs. 서인석), 노용면 님은 수상금을 미주 동창회에 Donation 하였음. 우수작품상은 10월호에 발표될 것이며 편집위원들은 일반 투고 동문들에게 상을 양보하기로함. 영상통화로 박은경님이 참여하여 대담과 GP Section을 의논하고 모두 잘 되었음을 보고함. 시계탑 서울의대 로고를 푸른색으로 하고 16면 전면을 앞으로 칼라로 할 것임. 다만 1면 기사를 Convention 전체사진과 필요한 기록사항을 추가하여 만들기로 함. 원고 교정시간에 이흥빈 동문의 시의 교정을 비롯하여 필요한 교정을 끝낸 다음 기념촬영 후, 3시 반경에 편집회를 끝냄. (기록: 편집장 서윤석)

### RHIM MARY LTYLE RHIM



Peacefully passed away on February 23, 2017 in her home in Potomac, MD. Born December 4, 1929 in Pleasantville, PA. Founder and Director of The Winchester School, Silver Spring, MD, established in 1970.

Mary was the beloved wife of Dr. Johng Sik Rhim; loving mother of Jonathan Arch Rhim (Thanh), Christopher Huc Rhim (Lauren), Peter Kennedy Rhim (Jill), Andrew Lytle Rhim (Darshini), Michael Johng Rhim (Laura), and Kathleen Rhim

Goodner (Ryan); devoted grandmother of Natalie and Aaron, Brendan and Abigail, Annie and Sarah and Rachel, Anika and Aidan, Nicolas and Claudia, and Emma and Cash.

Viewing to be held at Joseph Gawler's & Sons Funeral Home, 5130 Wisconsin Ave., NW, Washington, DC Monday, February 27, 2017 from 9am to 12 noon, with funeral service to follow at 12 noon. In lieu of flowers, memorial contributions may be made in her name to the Foundation for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F-NIH), www.FNIH.org.

Johng S. Rhim 301-299-5668 ( jrhim@verizon.net )

####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임종식(57) 선배님이 쓰신 글

Dear Friends,

I was grateful for NIH-KSA friends like you at this time of sorrow and thank you for the beautiful floral arrangement in honor of my beloved wife, Mary.

I appreciated your thoughtful donation to F-NIH cancer reserach fund in memory of Mary. We also appreciate having you with us at this difficult time in our lives.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coming for a celebration of Mary, her life fully lived.

It is not easy to raise 6 children and run successful school. In addition, she did take care of three mothers: my mother and her own as well as her step-mother for over 20years. A Korean friend told me that is perhaps a record unmatched anywhere in the world. Another friend said: you are not only a nursery school home but also nursing home!

Mary was born to be a teacher particularl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This was her life time dream to make a school that was what she wanted for her own children.

It was always Mary's dream to have her own school second only to her family. The Winchester School established in 1970 was one of her greatest achievement!

Our family today is 6 children and 13 wonderful grandchildren- very happy family! How lucky I have been to travel this journey with Mary, the love of my life!

Mary, I know that you are now resting comfortably in Heaven. I know with certainty that I will someday join you wherever you are. I love you today and always with all my heart.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again for joining the celebration of Mary's life. - Johng S. Rhim

#### 메리 여사(임종식 선배님 부인)를 추모하면서

Dear Honorable Dr.Rhim

Today I heard the sad news that your beloved wife Mary has deceased from Dr. BJ Song. How sad you might be my imagination could not reach.

I sincerely express my heartfelt condolences to you on behalf of my whole family, including my father and mother and my wife. To my memory, Mary was a really special lady who could keep the family and house strong and warm.

Raising so many children including adopted daughter so successfully must be not the simple task, but she has done so well.

Moreover, I have been so strongly impressed by the fact that she had taken care of her two mothers both until 100, and furthermore, she had given her best care to your mother, her mother-in-law also beyond 100.

This kind of record is nowhere in the world but by her.

She is so warm and kind to me and all other Korean NIH members, which I deeply appreciate.

I believe that she would be led to good and well place in the heaven.

With my sincere condolences

Sang Chul Park (from Korea)

임종식 대선배님 사모님 메리 여사 소천 소식에 슬픔을 전합니다.

우리 서울의대 워싱턴 동창회의 정신적, 그리고 실질적 기둥이신 임종식 대선배님 사모님 메리 여사님 소천소식을 접하며 슬픔 금할길 없으며 선배님과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돌이켜 보건데 워싱턴 초창기 정착을 할 즈음(30-40년전) 후배들을 아끼시고 보살펴주신 선배님, 그리고 후덕하시고 자애로운신 파란눈의 메리 여사님, 누님 같으시기도 했던 여사님이 하늘나라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가셨군요.

훌륭하신 남편을 맞이하신 여사님은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하던 자리에 계셨고, 또 그 자리에 아주 합당하신 훌륭하신, 헌신적 내조자 이셨던 분으로 알고 있으며, 아드님들을 아주 훌륭히 교육 성장시키시어 사회의 큰 재목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 좋아하시고 후배 아끼시는 남편 못지않게 기꺼히 집안을 개방하여 성찬과 따뜻함으로 후배들을 돌보심은 결코 남편에게 뒤지지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배님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다정하셨던 두 분중 한 분이 이렇게 홀연히 다른 세상으로 가신 지금 어떻게 이세상을 홀로 헤쳐나가실 지 ---.

선배님! 너무 상심 마시옵소서, 가셨지만 메리 여사님께선 늘 선배님과 가족들을 위해 늘 곁에 계실것입니다.

주님 보호하에 영원하신 안식을 누리소서, 메리 여사님!

2017년 2월 24일 Los Angeles 근교에서 후배 문성길 근조

# 親交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삶의 哀歡은 아름다워라” 라고 말하고 싶다

강수상 (53, 시카고)

1983년 여름 제1회 학술대회가 위스콘신에서 있었을 때로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는 의학에서 조금은 생소했던 노화 문제를 주제로 하고 이 학회를 준비하고 있던 본인은 심장학, 신경정신과학, 신장학, 면역학 등 내과분야를 위시하여 뇌와 심장 등의 영상의학, 병리학, 유전학을 강의해 줄 동문들을 찾고 있었는데 오하이오의 톨리도 대학에서 병리학 교수로 Needle Biopsy 분야를 연구하는 김기태 동문을 알게되어 강사로 모시게 되었다. 혈기왕성하고 준수한 그와는 케미스트리가 맞았는지 처음부터 십년지기 같이 친숙하게 되었다. 살고 있는 곳이 서로 다르니 자주 만날 기회는 드물었다. 동창회의 연례행사인 학술대회에서 며칠을 접촉하는 일이 고작이었고 가끔 시카고에 나오면 연락이 되어 만나곤 하였다. 시카고에서의 만남은 약속이나 한 듯 우리 둘만이 허심탐회 하게 기분을 풀어보려는 이름 없는 축제이었던지 서로 기분이 좋았다. 뉴서울 숯불갈비집에 우리가 들어 서기만 하면 마담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갈비를 앞에 놓고 소주잔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소주 회식이다. 별 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박장대소하고 고민하고 장광설을 하며 평소에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를 토해내는 리추얼이 되어 몇 시간을 보낸다. 만취로 가기 전에 우리의 이야기가 포화점에 이르면 다음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그가 은퇴하여 LA로 간 후 이 관계는 끝이 났지만 그래도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전화인사는 지금까지 계

속되고 있었다. 이렇게 지나치게 절제된 소박한 내왕이기는 하였지만 그렇게 담백한 대화 속에서 정감이 쏟아지는 우정을 서로 즐겼다. 그는 선배 동료 후배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 58년도 동문의 활동이 북미주지역 동창회 노년 세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그의 공헌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가 동창회장으로 앤아버에서 여름 컨벤션이 있었을 때는 동기들이 총동원 되다시피 하여 성공적인 모임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고 본인도 그 일원으로 참여한 것 같아 행복스러웠다. 은퇴 후에도 그가 앞장서서 시작한 모교 장학사업이 뜻 있는 여러 동문들의 참여로 크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 이만택 동문이 이사장으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소에 이런 뜻 깊은 큰 꿈의 실현에 심혈을 기울인 노고와 공헌에 감탄하며 아낌없는 칭송을 보내곤 했다. 금년에 개최되는 제34회 동창회 학술대회가 그가 사는 LA에서 3월 초순에 있고 그가 이 모임에 빠질 리가 없다는 것을 하늘은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 2월 12일 김 동문은 유명을 달리했다고 한다. 80을 넘어서서 우리 연배에 한 십년 안팎으로 정해진 순서도 예고도 없이 이렇게 떠나 간다는 일은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지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 세상에 생겨난 어느 생명체도 겪어야 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아쉽고 야속하게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꿈을 나누고 뜻을 서로 같이 하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온 우리는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생명체가 예외 없이 밟아야 하는 과정을 지금 이 시간에 그가 완성시켰고 아직도 숨을 쉬고 있는 우리는 만감을 쏟아져 진솔하고 겸허하게 이 과정을 수용하는 편에 서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의 길이고 모든 존재가 감당해야 하는 길이다. 이제부터 그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내일도 어제같이 살아 숨 쉴 것이지만 그 본질이 같을 수는 없다. 누가 그랬는가? 멘델슨의 음악은 슬퍼서 더 아름답다고 하였듯이 참 아름다움은 아픔과 슬픔에서 피어난다는 생각을 하며 이 순간을 감당해 보려 한다. 기쁨도 슬픔도 이 바다를 헤엄쳐 건넌들 때 새로운 차원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려고 나를 달라고 있다. 그래서 출생으로 시작되어 한 삶의 대단원의 결말로 이르게 되는 것을 본인은 완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려 한다. 유구한 시간이 걸려서 생겨난 우주의 끝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서 태양계의 하나의 행성인 지구만 하더라도 생긴지가 4억년이 넘었고 여기에는 최소 200만 종류의 생명체가 살고 있고 그리고 현대인이 생겨난 역사만 해도 40만년이 더 된다는 숫자들을 알리고 할 필요도 없다. 이런 규모의 시간과 크기를 생각하면 우주 속의 우리가 차지하는 초라한 현주소가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인간들이 얽히고 꼬인 역경을 대를 물려 가며 풀어내어서 삶의 물질적인 그리고 지적인 성장을 키워내 이렇게 풍요한 환경을 일구워 상상도 못할만한 문화 활동을 하며 번영을 가져온 인간의 성취는 경이로운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겸허하게 인간의 속성

그 본질을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 지구와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 이것을 간과하고 아무리 소망이 절실하다고 해서 무조건 집착만 하면 뜻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본질을 조심스럽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찾아보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이해하려는 첫째 단계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와 씨름하면 문제가 풀려가기도 하겠지만 풀림과 동시에 풀림으로 해서 생겨나는 새로운 문제를 풀어야 하는 끝없는 반복의 미로를 벗어 날 것 같지가 않다. 인간이 이런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전지전능(Omnipotence)의 존재가 감지되는 영감을 경험하면서 여기서 한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정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나 이 문제가 죽음을 넘어선 현재의 내 삶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에 구애될 일은 아니다. 죽음은 출생이 있었기에 뒤 따르는 것이고 출생의 과정이 없는 삶이 지속 되었다면 그것은 이제까지의 삶과는 상관없는 새 형태의 삶이라고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 된 말이다. 따라서 영원성이나 영구성을 무한사상의 세계에서 찾아보려 하기보다는 인간의 속성을 겸허하게 감당할 때 드디어 속성을 뛰어넘어 해방되는 감성의 경지에서啓發하여 거기서 영원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깨달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나의 친구 김기태 형의 훌륭한 일생이 이론 모든 것을 나름대로 회고해보며 한 생명이 엮어내는 역사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경이롭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좀 더 가라앉은 마음으로 훑어 본 것 같아 좋았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의 쓸쓸한 음률이 오래도록 내 가슴에 평화롭게 흐르고 있다. (02/20/2017)

“허허 참” 자네가 먼저 이 세상을 하직하는군. “지각해도 무방한 곳이 딱 한 곳 그게 천당이 아니던가?” 김기태 교수는 상주가 고향이지요. 고려조 12목 중 상주목은 경상도 감영의 소재지, 그가 스스로 밝힌 적은 없으나 평소 그 너그럽고 기품 있는 언동과 leadership은 그 가문과 전통을 말해주지요. 상주는 꽃감이 유명한 곳(전국 생산의 60%)이고, 산수가 아름답고 좋은 쌀(삼백쌀, 일품쌀)의 명산지이며 상주 배와 상주 포도가 잘 알려지는데다가 훌륭한 학자가 많이 난 고장이 아니던가요. 그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을 떠나 인근도시 김천의 (사립) 송설학원(1980 설립, 김천중학의 모체)로 진학하여 꿈을 키웠지요. 고종때 영친왕의 보모이기도한 설립자 최송설당은 일정부 알려진 교육자로 건학이념이 민족정신양성이며 남긴 말이 “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나라를 바로잡고 동양을 진압(지배) 할 수 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서울의대를 거쳐 그 외 과학교실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동양” 대신 세계의 일각을 진압(지배)코자 도미하였지요. Case Western에서 pathology를 전공하고 Medical college of Ohio에서 30년간 연구하고 가르치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대표적 저서 ‘Surgical Pathology with Cytological Correlation’은 두꺼운 책으로 사계의 권위 서적이 됩니다. 종신교수로 15년전 은퇴하고 기후가 온화한 Laguna Hills CA로 옮겨와 유유자적하였지요. 부인 Dr. 노정옥은 (마취학 전문의) 학생시절 이목이 수련한 우등생으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

## 고 김기태 교수를 보내면서 (1933-2017)

이종용 (58, 오하이오)



을 뿐 아니라 결혼 후 외국에서 고달픈 수련의 시절과 바쁜 개업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로서 취업부들의 성공적인 모범이 되어 주위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습니다. 장남 Steve는 Oncological Surgeon(Detroit, Mich), 차남 David는 Radiologist(Irvine CA)이고 손주 셋 특히 장손 영재, Mark는 두상이 할아버지를 꼭 빼닮아 큰사랑을 받았지요. 그의 성격처럼 그의 차림새나 취미나 기호품은 모두 소탈하여 free and easy, informal (소주 style)이었으나 친구를 고르는 데는 무척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그의 특이한 감탄사는 제가 이 글 서두에 인용한 “허허 참” 이지요. 영어로 ‘Oh well!’에 해당할까요? 빨리 단념하는 지혜일까요? 우리 힘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수 없이 속상한 인생사에 꼭 필요한 언어수단으로 생각됩니다. 도미한 후 초기에 가까운 친구의 성능이 좋고 탈이 없던 중고차를 물려받았는데 갑자기 lemon car처럼 고장이 나기 시작하여 속상한 적이 있었지요. 다른 친구들 충고는 돌려보내

라였지만 그의 대답은 그저 “허허 참”이었지요... ‘an art of giving up quick.’ 촌놈, ‘hill billy’ 은퇴 후 오하이오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후 잇을 만하면 그로부터 전화가 왔지요. 그의 첫마디는 늘 “어이 거창 촌놈 잘 있나 (죽었나) 아직 살아있나?” “무슨 소리야 이 상주 촌놈이”로 시작하는 이 정다운 대화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현대화와 국제화한 우리나라에 우리 둘 말고는 촌놈이 남아있지 않았습디다만 그로부터 촌놈으로 불리면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디다. 남부 두메산골 출신이 hill billy라면 활달하고 유능한 정치가 부부 Hillery와 Bill(Clinton)도 촌놈 비슷하게 들리지요. 그의 특유한 leadership은 간단하지요. 첫째로 친구가 많고, friendly 둘째 적이 없고, no enemy, 셋째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며, fairness입니다. 일견 평범해 보이는 김박사는 disciplined person으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었지요. 1000여명의 회원을 가진 SNUM CAA(북미주서울의대동창회장, 총무 임윤명(68), 재무 김원정(75) 직부에도 지도자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요. 그는 Golf에 nuts였습니다. 삼시세끼와 sex 다음에 중요한 golf에 몰두하였

으나 이 대목에는 항상 이류선수를 못 면했습니다. arc가 크고 powerful한 swing의 소지자인데 impact때 가끔 왼쪽 축이 무너지는 결점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남의 advise가 끝나기 전에 공을 쳐버리는 그의 고집 때문이겠지만 안타까웠습니다. 사실은 코스에서의 tip은 금물이지요. 그가 얻은 가장 큰 trophy는 명문 Sylvania country club, Toledo OH의 200여 club members를 누르고 Longest drive에 입상 하여 고가의 최신 high tech driver를 탄 일입니다. 그는 cart를 타기 보다는 걷기를 좋아 했지요. 잘 생긴 얼굴로 그가 백을 지고 날렵하게 걸어가는 모습에 백인 할머니들 여럿이 오줌 싼 줄 압니다. 아마 내일 오후 그는 우리 오랜 급우 이백기 형(Cincinnati OH, anesthesiology, 60년대 Cleveland 시절 수련의 동기, 2012 작고)와 teetime을 받았을 것입니다. rule을 존중하던 벼들이 천국이라하여 winter rules-Paradise rules로 game을 격하지 않기 바라지요. 빨랐다가 느렸다가 하는 김박사의 운전습관은 항상 마음이 안 놓이지만 신기하리만큼 사고 기록이 없지요. 그러나 단 한번 어떤 소형차량, 토요타가 그의 무거운 Mercedes 후부를 받고 대파했는데 기적적으로 그와 그의 차는 아주 가벼운 찰과상만 받아 교훈이 되었지요. 그런 일이 있는 다음 그의 충고로 우리 동기들은 모두 heavy gas guzzlers로 차를 바꾸어 7mpg 쯤 나가는 tank 부류를 한동안 몰고 살았지요. 작별의 시간이네요. 잘 가시오!!!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기태 형! 삼가 명복을 빕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미주동창회 학술대회를 준비해 달라는 이견일 회장님의 부탁을 받고 서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준비는 처음이라 우선 우려되는 점은 과연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필요한 충분한 연사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가 아는 많은 동문들이 동부에 거주하고 있고 또 Academic Field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우리 동문들이 동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우려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이번 학술대회의 theme을 작년 부터 결정했던 “New Horizons in Medicine”으로 정하고 그 안에 세 가지의 소재목 1) Personalized Medicine 2) Imaging in Modern Medicine 3) Regenerative Medicine/Stem Cell Research 중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소재목인 “Imaging in Modern Medicine”을 선정하여 panel discussion을 준비하도록 마음을 먹고 그 첫 번째 연사 확보를 위해 작년에도 연사로 수고해 준 시카고 대학에 근무하는 이선규 동문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번 LA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panelist로 참석해 달라는 나의 부탁에 흔쾌히 승낙을 해 주고 또 미주에서 영상의학과에 종사하는 우수한 동문들을 추천해주었다. 나의 초대에 대한 첫 번째 긍정적인 응답을 준 이선규 동문은 서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준비가 가능하다는 나의 자신감을 굳혀주고 “천 리 길도 한 걸음 부터”라는 우리나라 속담과 같이 한 사람 한사람씩 연사들을 구하면 좋은 학술대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을 부풀게 하였다.

그리하여 panel에서 토의할 소재목들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연사들을 우리 동문들 중에서 고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 핵의학의 대가이신 김의신 선배를 비롯하여 김보현, 박정미, 서귀숙, 강현선 등 학계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라성 같은 미주동문들을 초대할 수 있었고 또 모교 정신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권준수 교수도 초청하여 “Neuro-imaging: A useful biomarker for Schizophrenia”라는 재미있는 강의도 들을

## 제 34차 북미주 동창회 학술대회를 돌아보며

한승신 (76, Scientific Committee Chair)

수 있게 되었다. 선정된 많은 소재목 중 “New Development in MRI”와 “Computer Aided Imaging Interpretation”에 대한 연사는 우리 동문 중에서 마땅한 분들을 찾을 수 없어 University of Chicago에 근무하는 Timothy Carroll 교수와 University of Pittsburgh에 근무하는 배경태 교수를 선정, 초청하여 그들의 승낙을 받았다. 나로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은 panelists를 구성할 수 있어서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 Panel discussion moderator는 내가 존경하는 두 선배님 중의 한 분이 맡아주실 것을 믿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드렸다. 의외로 두분 다 가족 사정으로 LA 학회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주셔서 잘 진행되던 panel 구성에 큰 문제가 생겼다. 한편 많은 고심을 하다가 마침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 참여로 지난해 10월 한국 방문시 모교 영상의학과 과장이신 한준구 교수에게 moderator를 부탁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한국에 도착하여 한준구 교수와의 만남에서 LA 학회에 moderator로 와 주실 것을 부탁 드렸더니 우리 학회 기간이 마침 European Radiology meeting 기간과 겹쳐서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panelists의 대부분이 같은 의국 출신이라 오랫동안 만나 볼 겸 가능하면 LA 학회에 오도록 하겠다는 답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Imaging in Modern Medicine” panel 구성 도중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다. Panelists 중 한 분인 김보현 동문이 부인되시는 강지연 박사께서 같은 Mayo Clinic에서 Senior Advisor for Leadership and Organization Development로 근무하는데 이번 미팅 중 “Physician Leadership Development for the Changing Healthcare Environ-

ment”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면 우리 젊은 동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마침 젊은 동문들의 acarrier development에 도움이 될 topic과 연사들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젊은 동문들을 위한 mini panel 형성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되어 “How to be successful in changing Health Care Environment”를 제목으로 한 mini-panel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panel과 관계없는 일반 연사들이 이미 대부분 결정되어 하루 반의 미팅 일정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예년에 없이 미팅 시간을 연장하여 토요일 오후 session을 추가하여야만 mini-panel presentation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견일 회장님께 토요일 오후 미팅 장소 확보를 긴급히 요청하였고 회장님이 선뜻 승낙을 해 주셔서 토요일 오후 mini-panel presentation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내가 처음 우려했던 서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준비에 연사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였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물론 이런 준비가 가능하였던 것은 이현령, 신규호 동문 그리고 Scientific Committee Associate Chair로 수고해 주신 정영태 동문과 서부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 동문들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또한 훌륭하신 많은 선배님들의 은퇴로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매년 계속 열어 가기가 힘드리라는 생각은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젊은 동문들이 계속 미주에서 자리를 잡아 감으로써 적은 인원수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학문 연구와 학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해 미주 서울의대 학술대회에서 좋은 강의를

해 줄수있는 동문들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 하였다. 앞으로 매년 훌륭한 학술대회 개최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번 대회 준비 중 본인이 미주서울의대 동창회 차기 회장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관심은 가져었지만 CME session 진행을 위해 참석을 해 보지 못한 Non-CME session 참석을 부인 김정아 동문에게 부탁 하였다. 그 결과 Non-CME session이 김명원 chair의 많은 노력으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는 것과 젊은 동문들에게도 유익한 정보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편 우리 동창회 회원들의 구성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시니 CME가 필요하지 않고 Non-CME topic들이 그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젊은 동문들을 위해서는 CME session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의 컨벤션을 통해 보면 CME session 보다 Non-CME session에 더 많은 동문들이 audience로 참석하고 있고 CME session은 주로 젊은 동문들이 Non-CME session은 주로 기성 동문들이 참여하는 분리현상을 보게 되었다. 그 결과로 기성 동문들과 젊은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잃게 됨을 애석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CME와 Non-CME에 공통된 topic (주로 Health Care에 관계된)을 선택하여 2-3 시간의 general session을 마련하여 모든 동문들이 한 자리에서 강의를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젊은 동문들이 주로 참여하는 토요일에는 오후 session을 첨가하여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그들의 carrier development에 도움이 되는 topic들을 선정한 CME session이 진행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CME session, Non-CME session을 준비하게 될 chair 들과 committee member들이 topic과 연사 선택을 긴밀히 상의하여 기성동문들과 젊은 동문들 모두에게 최선의 컨벤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한다.



좌로부터 홍광신 안금환 김상우 최철 서윤석 조승렬 임윤명 이견일 차재철 신애라 신희식 황훈규 안세현 이홍규 김명원



# 간추린 Non-CME 34차 컨벤션

김명원 (68, Non-CME Chair)

동창회의 연륜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젊어가는 CME의 전문화된 내용들이 많은 동문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한편 과거 수 년 간 주로 예술이나 교양, 취미생활을 위주로 해온 Non-CME가 여러 동문들께 더 인기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 이번 회장단은 좀더 심도 있고 질 높은 Non-CME를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연사들은 의대 동문뿐만 아니라 서울대 타 대학에서도 또 로컬과 타 지역에서도 예술 및 인문학의 대가들을 초대 하였다.

미술 음악 문학 역사 천문학 건강 영화 여행은 다양하면서도 우리 의대 동문들과 가족들의 지적 입맛을 자극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준비했다.

340톤의 바위를 공중부양 시킬 수는 없을가? 빛으로 예술을 만들 수는 없을가? 등등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고민, 그리고 그들이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시화 하는가를 알아듣기 쉽게 보여준 최도빈님(미학과 졸, 뉴욕주립대학 철학 박사)의 강의는 난해한 현대 미술에 우리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주었다.

LA Land의 (LA, California) Traffic Jam에 갇혀 늦어진 연사가 연착한 막간을 이용해서 김택수(63)님이 카메라에 담은 몇 편의 자작시를 공개하여 주시는 덕분에 행사는 끊김이 없이 순조롭게 진행 되었다.

LA Dream Orchestra의 지휘자인 다니엘 석은 힙합이나 랩 밖에 모르는 십대 청소년까지도 솔깃할 정도로 재미있게 "Intellectual Music"(클래식)의 역사적 배경과 매력을 소개하여 주어 이미 내년 회장단으로 부터 앵콜 요청을 받았다. 곧 이어 USC의 Musicologist이자 피아니스트인 Joshua Grayson이 조국을 그리며 작곡한 쇼팽의 작품들을 그의 강의 중간 중간에 직접 연주하여 강의실을 한결 호사스러운 분위기로 띄워 주었다.

UCLA의 유전학 교수인 Aaron Panofsky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전자 검사의 증거 앞에서든 끈질기게 매달리는 편견과 아집의 사고 과정을 Algorithm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차가운 이성보다도 신화의 품속에 안주하기를 선호하는 인간적인 본능을

재조명 하였다. 천문학과 교수 홍승수님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지구와 달의 형성 과정 및 그 이후에 생긴 일련의 필연적 사건들과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을 제시 하였다.

우연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우연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그 우연을 어떻게 자신이 목적하는 필연으로 끌어 나가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며 책임이다.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가야 할 목표다.

일상에 코 박고 사는 우리들의 우물안 개구리 시야를 훌쩍 뛰어 넘어 우주의 무한 공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다보는 큰 안목을 갖게 해 준 속이 탁 트이는 강의였다

점심 Break 후의 오후 강의는 버펄로 뉴욕주립대학의 "The Best Lecturer Awardee"인 박승균(61)님께서 앞 뒤 아귀가 딱 딱 맞아 떨어지는 명쾌한 Presentation으로 "건망증"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생충학의 석학 조승렬(68)님의 "뇌고충증" 강의는 보약으로 뱀 잡아 먹다가 뇌질환이 생긴다는 결론인데 미국에서야 아무리 몸에 좋다 해도 뱀 잡아먹는 동물이 있을까?

식당에 나오는 중국산 김치를 먹기가 찝찝하다고 했더니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단다. 회충 알이 발견 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산동성 보건 당국과의 협의 하에 "기생충 박멸 기구(?)"라는게 있어서 매년 조사 결과를 교환하고 있는데 과거 수 년 간 중국도 한국이나 마찬가지로의 식품 위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한국 의학계의 "Universal Man"인 이홍규(68)님은 우리의 선조가 아프리카를 떠나 바이칼호 부근에서 원-몽골리

안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빙하기가 끝날 즈음 남쪽으로 내려와 남방계 사람들과 섞이면서 요하 문명을 만든 과정을 설명하였다. 당뇨병의 원인을 추적하다가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게 되었고 미토콘드리아의 유전기전을 연구하다보니 인류의 진화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세계의 인류학, 고고학, 언어학자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결국은 "한국인의 기원"을 저술하게 됐다는 이홍규님의 왕성한 학구열은 닥치는대로 먹어치우는 팩맨을 연상 시킨다. 지금은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꾸준히 유명 과학지에 발표하여 구미 의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동양사학과 졸 현 중앙일보 오렌지 카운티의 본부장인 이종호님의 발표에 의하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기록유산은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중국(10) 보다도 훨씬 더 많은 13개라고 한다.

객관적 사실 기록을 보장하기 위해 왕들도 열람을 금지시켰던 우리 조상들의 철저한 기록 정신이 지금도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으면만 요즘의 언론의 왜곡, 편향 조작 보도는 어찌된 일인가.

연사들 중의 홍일점 클라라 김님은(김홍서 69 부인)은 LA에서 20여년 간을 미술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실력파이자 지난 17년간을 Getty Museum에서 봉사해온 베테랑 Docent로서 그녀가 알고 있는 LA의 명소 게티 센터의 요점과 급소를 자상히 소개하는 것으로 금요일 강의를 마쳤다.

LA 아주관광 사장 박평식님의 털털한 농담으로 시작된 토요일 첫 번째 강의는 전날 밤 대연회에서 흥청망청 마시고 춤추다가 밤늦게야 잠자리에 든 덕에 아직 덜 깬 아침잠을 쫓기에 안성마춤이었다.

의사 선생님들, 더구나 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 선생님들 앞이라 많

이 떨어진다고 고백한 박평식님은 간밤의 한바탕 파티로 마음 느긋해진 청중들의 서슴없는 반응에 힘입었는지 교수급 가이드의 조크 메들리를 신나게 풀어 나갔다.

영화 평론가 박흥진님의 "추천할 만한 영화들"은 모두가 불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었다.

평범한 여자가 불륜의 사랑에 휘말려들어 수치와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아! 그러나 그 짜릿한 "불륜의 사랑의 폭력."

강의가 끝난 후 Coffee Break가 다 끝날 때까지도 몇몇 동문과 사모님들이 박흥진님을 에워싸고 놓아 주지를 않았다. 아직도 가슴 속에 타다 남은 불씨가 뜨거운 분들.

"의사 문필가들" 라는 제목 하에 소개된 "And the Mountains Echoed"는 아프가니스탄 의사이자 소설가 Hosseini가 쓴 최근작이다.

아버지 손에 의해 팔려 간 누이동생을 잊지 못해 하다가 정작 만나서는 치매에 걸려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는 애뜻하면서도 박진감 있는 인간 드라마인데 사대 영어과 출신 LA 현역 변호사 김지영님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명강의로 우리들을 깊은 철학적 사색의 경지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온기철(71)님의 "중국 근대사 제2편"은 제갈양과 조조를 빼 놓고 중국에 또 무슨 이야기 꺼리가 있을까 했는데 강의를 장장 1시간 반을 계속 했는데도 청중의 수가 줄지 않았다. 모택동과 장개석, 송씨 자매들, 공산주의, 민족자결주의 등등 단편적으로 훑어들어 알고 있던 사건들을 조리있게 정리해 주었다. 내년에 있을 제3편은 아마도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인 즉 다음번 강의는 이젠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이렇게 해서 이틀 동안의 Non-CME 행사를 마쳤다. 가슴 뿌듯하고 머리도 뿌듯한 이틀이었다. 이 세상 어디에 이 처럼 멋있는 행사를 하는 동창회가 또 있을까? 허바드? 솔론느?

이토록 다양하면서도 고급 지성인으로서 꼭 갖추어야 할 주제들을 이틀 간에 걸쳐 진지하게 토론 할 수 있는 의사들의 모임은 SNUCMAA of NA 뿐임에 무한한 자부심을 갖는다.





**2017 Convention, Green Project section report**



3월 초 Pacific Palm Resort (City of Industry, CA)에서 열렸던 미주 의대 총동창회 및 연례 학술대회에 남명호(81) 동문부터 막내 송지혜(14) 동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스물 한 명의 GP member가 참석하였다. GP 멤버들은 Scientific Session 뿐만 아니라 non-CME program, 그리고 banquet과 museum tour 등의 social event에도 적극 참여하며 선후배 및 동기들과 값진 교류를 하였다.

Imaging in Modern Medicine, Personalized Medicine, Regenerative Medicine/Stem Cell Research을 주제로 마련된 Scientific Session에서는 총 26개의 연제가 발표되었는데,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내과, 정신과, 신경과 등을 전공한 동문들이 심도있는 내용을 최신 지견과 함께 알기쉽게 전달하였다. 그 외에도 흉부외과, 기생충학, 병리학, 의공학, 안과학, 인류학 등을 전공한 동문들이 학술대회를 다채롭게 빛냈다.

Healthcare Policy와 Changing Healthcare Environment에 관한 미니 심포지움은 session 마지막인 토요일 오후에 열렸음에도 동문들의 열띤 참여로 시

간을 연장하면서까지 토론을 이어갔으며, Physician Leadership Development에 관한 강의는 GP 멤버를 비롯한 모든 청중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이건일 동창회장(68)의 말씀처럼 '동창회가 연건동 학창 시절을 반추하는데 끝나지 않고, 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의학 지견을 나누고, non-CME course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GP 멤버들은 이번 컨벤션을 세심하게 준비해주시고 아낌없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회장단, 이토록 다양한 전문분야를 유기적으로 엮어 알찬 학술대회를 마련해주시고 연자로 초빙해주신 Scientific Committee, 그리고 장거리 비행과 시차로 인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늦은 밤까지 GP 멤버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시고 미국에 진출한 졸업생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의대학장단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내년에도 많은 GP 멤버들이 참석하여 이러한 귀한 경험을 직접 맛보기를 희망한다.

**Post-Convention Comments From Green Project Alumni**

**송지혜(14)**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후 만나게 된 정영태 선배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동창회 컨벤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전공 분야도 정해지지 않았고 당시에는 지금 하고있는 연구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시점인데 연사로 참석해달라는 부탁까지 받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많은 선배님들 앞에서 미주동창회의 꼬꼬마 막내인 제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주어진 시간을 채울 수 있을까 많이 부담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주어진 몇 달 동안 더욱 열심히 일할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컨벤션을 통해 가까이 계셨는데 몰랐던 선배님들, 미국에서의 정착을 위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선배님들, 그리고 어린 후배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선배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참 의미있는 주말이었습니다. 컨벤션에 참석할 수 있게 격려해주시고 지원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송경민(09)**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일년에 한 번 시간을 내어 발표를 준비하고 지식을 얻어가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동창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컨벤션에

참석할 때마다 주위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는다. '아니 너희 학교는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컨벤션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니?' 컨벤션을 계기로 이제까지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는다. 내년 컨벤션이 기다려진다.

**김혜리(08)**

2015년 여름 미국에 오고 올해 처음으로 미주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서부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 동문 선후배님들을 만나뵙 수 있었고 또 그간 만나기 힘들었던 동기들과 한국에 계신 교수님들도 뵙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크게 느낀 것은 '넓고 긴 안목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매진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강의와 질문도 접할 수 있었고, 또 연회나 미술관 방문 등 다른 시간에 만나뵙었던 선생님들도 삶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따뜻하게 응원 격려해 주셔서 무척 감사했고 또 내년에도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수(08)**

박사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김태웅 선배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박사

연구를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선배님들의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십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고 당당하게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선배님들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삶과 학문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어 갑니다. 서울의대 졸업생으로서 미국에 와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살아가게 된 것은, 이미 그길을 걸어 가신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닦아놓으신 기반위에 서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의과대학 후배들을 만나게 된다면, 미국에 계신 선배님들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최태웅(02)**

2015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하기 직전에 뉴저지에서 있었던 SNUCMAA 동문회에 참석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침 오랜만에 캘리포니아에서 동창회를 한다고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무리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가서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그리고 처음 뵙는 분들과 식사도 하고, 반갑게 인사도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골수이식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전공하지만 그래도 general medicine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을 CME session presentation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Stem cell transplantation for severe autoimmune disease"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마지막 발표시간을 30분 째 채워서 해서 죄송스러웠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 CME session 발표를 해본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앞으로는 general medicine review topic들을 다루는 것이 반응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날 일정이 있어서 늦은 오후 비행기로 샌프란시스코로 부랴부랴 돌아와야 했었지만, 다녀오길 잘했다 싶은 동창회였습니다.

**박혜성 (06)**

2006년 의대 졸업 후 미국으로 온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한 동창회였습니다. 마침 작년 겨울 서울에서 열린 졸업 10주년 동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그래서인지 더욱 오랜만에 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한 모임이었습니다. 발표할 기회까지 마련해 주신 한승신 선생님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박정미 (85)**

1994년에 fellowship이 끝나고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온 지 십수년이 되었지만 전체 미주 의대동창회 모임에

는 처음 참석하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훌륭히 성공하신 수많은 선배님들과 동기, 후배들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무한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1992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무 것도 모르던 저에게 운전면허 따는 법부터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셨던 김의신 교수님을 다시 뵙은 것이 너무도 반가웠고, 이번 conference를 준비하는 동안 끊임없이 생각없는 질문들로 괴롭혀 드렸는데도 한결같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와 주신 한승신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강현선(98)**

I am grateful to Dr. Hahn and the Scientific Committee for inviting me to speak in the "Imaging in Modern Medicine" panel this year. I enjoyed the talks by the other panelists as well as the opportunity to meet alumni in my field. The small but close-knit GP section was also impressive. I caught up with old friends and met some alumni who I had only known via Facebook. Although this was my first SNUCMAA conference (after coming to the US in 2000 for graduate school), I can confidently say it won't be my last. - Hyunseon Kang

**홍정연(91)**

It was a great privilege joining the last SNUCMAA annual convention in California. Though the whole program was wonderfully planned and very well organized, I really cherished my time at the scientific convention where I could meet the great achievers from SNUCM and learn the up-to-date knowledge in a variety of medical fields. Also I learned how much time and efforts the organizers had put for preparing the program. I deeply appreciate them for their love, passion, sacrifice and time. Especially I would lov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President, all the senior members and board members for their generous support and Dr. Hahn Seung Shin and Dr. Kim Jung Ah for their tremendous consideration and care. The one thing I regret is I did not manage to meet all the green project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convention and to have enough time to catch up with them due to my short stay. However, I really enjoyed the convention and meeting lots of respectful alumni. In future I hope that I will be the one of the members who will continue to prepare this wonderful tradition for our alumni association.



젊은 동문들과 차기회장 한승신 김정아부부, 남명호 동문

34차 컨벤션 Non-CME 강의내용

# 뇌고충증 이야기

조승열 (68, 서울)

고충(孤蟲)이란 19세기 초 유럽의 생물학자들이 개구리나 뱀 등 육서(陸棲) 척추동물의 피하에서 널리 발견하였던 조충(tapeworm) 애벌레인데 발견 당시에는 그 애벌레의 성충이 무엇인지 몰라 고아(孤兒) 애벌레(스파르가눔)라고 부른 기생충입니다. 총체의 길이는 2-20 cm, 폭은 1-2 mm인 백색(白色) 총체입니다. 20세기 초 이 애벌레의 성충이 개나 고양이 소장에 사는 만손열두조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이 애벌레는 아직도 고충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생충은 사람의 피하조직이나 근육에 감염된 것이 가끔 발견됩니다. 사람에서 이 기생충은 피하 조직과 근육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고 드물게 복강, 흉강, 안와 등을 침입하여 오랫동안 살면서 육아종(肉芽腫)을 만듭니다. 중추신경계에 침입한 사례도 매우 드물게 발견됩니다. 이번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에서 발표한 뇌고충증(腦孤蟲症)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제가 고충증에 대하여 일하면서 수술 전 진단이 불가능하였던 뇌고충증을 수술 전에 진단할 수 있게 한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고충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 졸업 후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에 입국한 1968년 여름이며 당시 보건대학원 전임강사였던 윤종준 선생이 고향 거제군 연초면에 다녀오면서 고향 마을 야산에서 뱀 세 마리를 잡아온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살아있는 뱀을 생전 처음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감염된 고충을 처음 보았습니다. 1970년대 초 서울의 극장에서 본 영화를 상영하기 전 대한뉴스를 내보냈는데 우리나라 공수특전단 장병이 뱀을 잡아 날로 먹는 생존훈련(survival training) 장면을 보이면서 우리 국군이 용맹함을 선전하였었습니다. 저는 그 대한뉴스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군인들이 고충증에 걸리는데 라고 생각하고 군에 입대하면 공수특전단 장병 중 고충증이 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1971년 육군에 입대하여 원주 야전군의무시험소에서 근무할 당시 원주는 강원도 원성, 횡성, 홍천, 평창, 영월과 충북 제천, 단양 등지에서 잡은 뱀의 집산지였습니다. 원주 C도로를 따라 뱀도 소매상 점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뱀을 사다가 의무시험소에서 뱀의 고충 감염 여부와 감염 강도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뱀의 분류는 고려대 생물학 윤일병 교수가 가르쳐주셨습니다. 뱀의 종류에 따라 감염 상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41%가 감염되어 있었고 뱀 한 마리당 고충이 5.5 마리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고충 감염 상태를 논문으로 작성하려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과거 자료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표된 논문의 참고문헌을 모두 뒤쫓아 가는 방법으로 문헌을 수집하였습니다. 지금의 서울의대 확장실에는 1970년대 초까지 일본인 교수들이 해방 후 일본으로 가면서 반출하지 못하고 남긴 도서를 쌓아둔 창고가 있었는데 당시 쌓아둔 책에는 먼지가 많이 덮여 있던 것을 치우면서 문헌을 뒤져서 문헌자료를 모았습니다. 일본 교수들이 남긴 도서는 참으로 충실하였습니다. 그때 뱀의 감염조사 자료뿐만 아니라 사람 감염 보고, 생물학 연구 자료 등도 함께 모았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 두 편을 만들어 기생충학잡지에 발표하였습니다.

하나는 On the Sparganum mansoni infection in some Korean terrestrial snakes (기생충학잡지 11권 87-94, 1973) 이고 다른 한 편은 Some aspects of human sparganosis in Korea (기생충학잡지 13권 60-77, 1975) 였습니다. 그리고 조승열이 국군수도통합병원 병리과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김포의 1공수여단 장병의 고충 감염 사례를 비노기과와 정형외과에서 발견하여 생존 훈련으로 인한 스파르가눔증 2례 (대한의학회지 17권 367-71, 1974)로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매우 많이 인용된 논문인데 인용 이유는 우리나라 고충증 환자 중에 척추강(腔) 육아종으로 하반신마비(paraplegia)가 온 환자 기록을 소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이 중추신경계 감염을 일으킨다는 것을 소개하는 문헌이었기 때문입니다.

1978년 조승열은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에 선임 방문연구원으로 연수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가기 전 서울의대 병리학 지재근 교수께서 저에게 권하기를 혹시 모르니 발표한 논문 별책을 한 벌 가져가라고 하셔서 권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저의 서울의대 동기인 경희의대 정형외과 이석현 조교수가 Oxford의 Radcliffe Infirmary에서 소아정형외과를 연수하고 있었고 이석현 선생의 부인 박혜경 조교수(이화대의대 미생물학)가 같은 병원의 Clinical Virology Lab에서 연수 중이었습니다. 박혜경 선생이 근무하는 Lab에는 Mary Warrell이라는 영국인 연구원이 있었는데 teatime에 Mary Warrell이 박혜경 선생에게 말하기를 자기 남편은 세계 뱀 교상(snakebite)에 대한 별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혜경 선생이 자기 남편 친구 한 사람에 런던에 와 있는데 뱀 기생충을 연구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Mary Warrell이 집에서 자기 남편 David Warrell에게 그 말을 전했더니 혹시 뱀 기생충에 대한 문헌이 있으면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합니다. 이석현 선생이 런던의 조승열에게 전화하여 그 말을 전했고 저는 앞에서 말한 논문 별책 3권을 보내면서 참 재미있는 인연이 연속되고 있구나 생각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한 다음 해에 영국 Oxford에서 편지가 왔는데 David Warrell이 자기가 Oxford University Press기 기획한 Oxford Textbook of Medicine의 감염 파트 편집인이 되었다면서 조승열에게 스파르가눔 감염에 대하여 1000 단어 정도로 원고를 작성하여 기고하라고 하였습니다. David Warrell이 저의 시원치 않은 영어로 쓴 논문을 읽고 가치를 알아준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연에 우연이 겹치고 행운이 뒤따라 좋은 내과학 교과서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OTM 5.448-9, 1983).

그 후 고충증에 진단에 대하여 저는 어려운 경우를 만났습니다. 뱀을 많이 먹은 사람의 몸에 생긴 종괴가 고충 때문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고충증을 확진하려면 생검을 하여야 하지만 수술 이전에 고충증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환자 뱀 생식 과거력과 환자 증상만을 기초로 고충증일 수 있다고 말하면 진단이 맞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생겼습니다. 즉 고충증을 생검 하기 이전에 진단하려면 다른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고충증 진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는 고충 특이 항체검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당시 새로 개발되어 널리 응용하기 시작한 면역항체진단법 (ELISA)을 연수하고 와서 조직 감염 기생충인 폐흡충증이나 유구낭미충증 진단에 쓰고 있었으므로 조직에 감염되는 고충

의 경우 환자 혈청과 고충 총체 항원을 이용하여 고충 특이항체 진단을 ELISA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모아놓았던 고충환자 혈청으로 실제로 해보니 고충 특이 면역항체진단법은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았습니다. 즉 항체검사로 사람 고충 감염을 높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생충학잡지 22권: 222-8, 1984).

그런데 고충증은 흔한 감염이 아니어서 임상 의사 선생님들은 고충을 의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고충증 진단을 위한 항체검사는 당연히 의외하지 않습니다. 임상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검사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만들어 놓은 고충증 ELISA 항체검사를 버릴 수도 없어 저의 저의 기생충학 실험실이 의뢰 받던 중추신경계 기생충 감염 진단 항체검사에 무작정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의대 기생충학교실에서는 항체 검사를 의뢰한 중추신경계 환자에 대하여 폐흡충, 유구낭미충 항체검사와 함께 고충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다항원 항체검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984년까지 수술로 우연히 진단하였던 뇌고충증 증례는 전 세계적으로 10례가 되지 않았는데 환자 혈청과 뇌척수액에서 고충 항원에만 반응하여 뇌고충증으로 진단할 수 밖에 없는 환자가 우리 실험실에서는 매달 1례 이상씩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서울 시내 병원과 지방 각지 병원에서 의뢰한 환자 중 같은 항체반응을 보이는 수는 30례가 넘었습니다. 저는 그 항체 양성 환자 명단을 들고 서울의대 방사선과학교실 장기현 교수(신경영상 전공)와 상의하였습니다. 여러 병원의 양성 환자 영상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아니고 서울의대 방사선과라고 생각하였고 고충 항체 양성 환자의 뇌영상을 모아 공통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사람도 당신이 아니냐고 말하였습니다. 장기현 교수는 그 증례 중 병리학적으로 확인한 뇌고충증 환자의 영상소견을 요약하여 RSNA가 발간하는 Radiology (165권 505-10, 1987)에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나타나는

혈청/척수액 내 항체 양성 환자의 MRI 영상 소견 등을 발표 하였습니다 (Neuroradiology 34권 1-8, 1992; Radiology 188권 751-7, 1993). 이제 뇌영상에서 뇌 혈관질환이나 결핵 또는 종양과 감별이 되지 않았던 두개강내 병변 환자에서 혈청과 뇌척수액의 고충 항체반응이 양성이면 수술 전에 뇌고충증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7년 우리는 전국에서 모은 정상인 850명 혈청을 다항원 항체검사로 검사하였습니다. 그 중 고충 항체 양성반응 비율은 1.9%였고 양성 반응 성인 중 항체가 (抗體價)가 높아 살아있는 고충이 감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된 사람의 비중은 1.1%에 달하였습니다. 즉 1980년대 말 우리나라 성인의 약 1%인 10만-20만명 가량이 살아있는 고충 감염자라고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연충(蠕蟲, helminth) 감염 중에는 감염자 몸에서 살아 움직이는 종류가 세계적으로 몇 가지 있는데 그들 기생충이 중추신경계에 침입하는 확률에 대한 조사 보고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NMC 신경과에 근무하셨던 오신중 선생은 폐흡충 감염자 중 뇌폐흡충 환자의 비율이 약 0.8%라고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이동하는 성질을 가진 연충의 중추신경계 침입 빈도로 가정하고 고충 감염자 중 뇌고충증을 일으킨 발생 빈도에 대입하여 추산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800-1,600명 정도의 뇌고충증 환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뇌고충증 환자수 추정치입니다. 뇌고충증 환자는 감염 초기에 총체를 외과적으로 제거하여 치료하면 거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뇌고충증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승열과 함께 연구 성과를 함께 기뻐하시고 격려하셨던 돌아가신 지재근 교수(서울의대 병리학)께 감사합니다. 지재근 교수는 뇌고충증 연구의 가치를 인식하시면서 지원하셨습니다. 또 고충증 환자의 병리조직학적 특징을 기술한 논문을 발표하셨으며 뇌고충증 환자의 조직을 병리학적으로 판단하셔서 뇌고충증 영상소견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되셨습니다.

- 조승열(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가천의대 기생충학 초빙교수)

## 홍승수 천문학과 교수가 34차 컨벤션 강의를 마치고 보내온 글

여러분께,  
지난 3월 2일부터 6일까지 LA에 머물렀습니다.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가 주관하는 모임의 non-CME part에 제가 초청연사로 불려갔었습니다. 여기 첨부된 ppt 문건이 거기서 발표한 저의 '우연(≒) 필연' 강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우연과 필연의 끌고 당김을 그 동안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제 삶의 방향으로 삼아왔으니까요.

한 가지 의미 깊은 차이라면 제가 대학부터 들고 다니던 코펠의 모습을 이번 버전에 실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 낡을 대로 낡은 코펠이 출국 얼마 전에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실제 발표에 사용했던 ppt 자료는 여기 첨부한 것보다 볼륨이 큼니다. 이 버전은, 거기에서 있을지 모를 질문을 대비해서 준비한 보조 자료와 extended abstract 등이 제거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는 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소중한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Karl Jaspers의 독어 원본의 발췌와 영영본의 준비, Mary Oliver의 THIRST의 적시 도착 및 거기 실린 시를 갖고 나눈 대화, Yuval Harari의 Homo Deus가 제 손에 적시에 들어오게 된 신비, 부부의 LA행에 대한 격려와 배려와 열려, 소중한 기회의 제공, 특히 서 선생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일부 워딩을 다시 손보게 하

는 계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쓰다보니 한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기에 있었습니다. 그 도움에 힘입어 제 흐트러졌던 생각들을 정리하고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어쭙지않은 생각을 한 가닥 스토리로 만들어 많은 이들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꼬엘료의 해안이. 여러분께서는 저의 강렬한 바람에 온 우주로서 호응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또,  
함허재 초부 관허 홍승수 올림

강의 내용(Abstract)

### 지구-달 계에 얽힌 우연과 필연의 길항

지구와 달의 형성과정을 돌아보면 우연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진화 과정은 필연의 연속이다. 인생도 우연에서 시작하여 필연으로 이어진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언제나 우연적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그 만남의 결과는 필연적이다. 우연이 신의 영역이라면 필연은 사람의 의지이다. 만남은 신비다. 우연과 필연이 끌고 당겨 우리네 삶을 추동해오고 있다. 삶의 궤적에 남겨진 우연-필연의 길항 과정을 돌보고자 한다.



박은경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이 사람의 향기**  
**10문 10답**



지난 달 LA 교외의 Pacific Palm Resort에서 열렸던 동창회 Annual Medical Convention에서 박영수(08, 의료인류학) 동문을 만났습니다.

Dr. 박은 이번 컨벤션에서 'Asian Modernities Imagined in Ethiopia' 라는 제목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국제보건사업 현장을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였고, 지난 2015년 컨벤션에서도 유사한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의학과 인류학을 접목한 흥미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Dr. 박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저는 2008년에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스탠포드 대학 인류학과 사회문화인류학 박사과정 5년차에 재학중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15개월간 현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은 박사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유학반 친구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보며,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오랫동안 꿈꿔 왔습니다. 그래서 예과 2학년이었던 2002년에 University of Washington으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그 곳에서 국제보건, 개발경제, 정치사상 등의 수업을 들으며 인문사회과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악캠퍼스에 돌아와, 예과 3학년 시절에 들었던 독문과 전영애 교수님의 '독일명작의 이해' 수업은 인문학과 글쓰기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방황하는 학생들을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인간에 대한 깊은 고민과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인문학의 향기를 품으신 선생님의 학문을 늘 그리워하게 말יי죠.

돌아가신 이종욱 WHO 사무총장님께서 생전에 모교를 방문해서 강연하신 이후에, 서울의대 학생들 사이에 국제보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이에 저는 서울의대에 Global Health Forum 모임을 만들어 GP member인 송경민(09)을 비롯한 다른 의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미국에서 수련을 받고 국제보건 활동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본과 4학년 때는 WHO 인턴십을 했고, Temple 대학병원 감염내과에서 clerkship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로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이주민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조선족 이주노동자 건강문제와 문화적 갈등'에 대해서 학위논문을 썼고 이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박사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2. 이 지구에 사는 약 70억명의 사람 중 개인 박영수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대를 다니던 시절부터 아재 개그(아저씨 개그) 수준의 저열한 말장난을 취미로 삼아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팔자 걸음을 못 고 치던 친구에게, '니 팔자라서 어쩔수 없다'고 놀리기도 하고, 이름이 김미

정인 후배 여학생에게 '넌 왜 아직까지 이름이 미정이나'고 하고, ABG 채혈 실습을 하는데 주변 친구들이 신경쓰여서 자주 혈관을 못 찾겠다며 '니들(needle) 좀 가만히 있어'라고 하고, 안과질환 중에 가장 희귀한 질병명은 잘 안 걸린다는 뜻의 '안와질환' 이라고 했지요. 더 있습니다. 눈에 걸린 암을 가장 잘보는 병원은 '안암병원', 얼굴에 생긴 암을 가장 잘보는 병원은 '보라매(불암의) 병원'. 목이 아플 땐 '모기약', 팔이 아플 땐 '파리약', 쥐가 났을 땐 '쥐약'을 처방해야 한다고 했죠. 이런 제 말장난에 중독된 의대친구들은 오랫동안 만나도 요즘 새로 개발한 말장난이 없는지 늘 제게 묻습니다.

**3. 의료인류학은 어떤 분야인가요? 어떤 매력에 있는지?**

제가 처음 인류학이란 말을 듣게 된 것은 청년의사에서 출간된 Paul Farmer에 대한 책, <작은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였습니다. 당시에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져 방향을 했고, 국제보건의 다 무슨 소용이냐며 마음이 비뿔어졌었죠. 그저 돈 많이 버는 성형외과 의사나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성형외과 sub-intern을 신청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런 저의 좌절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훈상 형님(현재 KOICA 가나 사무소 보건전문가)이 Paul Farmer의 책을 선물해 주었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지금은 World Bank 총재가 된 Jim Kim과 그의 의대 친구인 Paul Farmer가 인류학자이자 의사로서 Haiti에 가서 결핵과 AIDS 환자를 치료하며 국제보건 사업을 하고, 동시에 그 지역의 역사와 정치, 문화를 연구하여 Haiti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더 큰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발견해가는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며 연구하고, 사회문화를 스펙트럼을 펼쳐놓은 것처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인류학의 매력에 처음 노출된 것이죠. 돌이켜 보면, 이 책의 원제인 <Mountains beyond Mountains>를 <작은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 이라는 그럴듯한 제목으로 대신했던 것이 인류학에 대한 환상을 품게 한 원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임상 의사의 길을 접고 인류학을 공부하게 된 길은 산 넘어 산이었거든요!

저는 제 전공분야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박사공부를 정말 즐겁게 했습니다. 인간의 몸과 질병을 렌즈삼아 사회와 역사, 문화, 정치경제를 관통하는 풍부한 통찰이 흘러넘치는 의료인류학자들의 글을 읽으며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적어도 이미 다른 학자들이 써 놓은 글을 읽는 것은 잘 쓰여진 소설을 감상하는 것처럼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넘나들며 즐기는 향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부딪히며 현장에서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창조적 고통속에서 스스로 책을 쓰는 작업을 통해, 인류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도구는 인류학자의 몸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 분야이지만, 미국 인류학자들 중 3분의 1이 의료인류학자일 정도로 큰 분야이고, 미국에는 인류학 박사학위를 가진 MD가 60명이 넘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통계라서, 요즘의 의료인류학 MD-PhD 과정의 인기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은 1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사회이고, 식민지배와 냉전시대를 거치며 국제보건 활동을 많이 해왔기에 의료인류학의 역사가 더 길고, 학문의 저변이 더 넓습니다. 이제 국제보건을 통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한국에

서도, 의료인류학의 관점에서 기여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사회와 열악한 사회적 보호망이 한국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어, 몸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인류학적 통찰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의 작업은 결국, 한국에서 출간된 인류학 개론서의 제목처럼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온 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 속에 던져져 그 문화를 조금씩 배워가며, 타자를 이해해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에티오피아에서 1년을 살면서, 제가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왔는지 자신을 성찰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껍질을 깨뜨리고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겪으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돌아와서도, 그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적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 환자들이 전하는 일상의 이야기, 주어진 진료실 환경부터 질병의 etiology, pathogenesis, prognosis 의 전 과정에 걸쳐 어떤 사회문화적 요인이 개입하고 있을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인류학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자아성찰의 방법론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의료현장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제가 한국 의료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4. 의대 시절의 추억 중 기억에 남는 장소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의료복지 NGO인 '아름다운 생명사랑'을 통해 미아리 독거노인 방문진료를 했던 본과 1학년 시절, 한 할아버지의 기구했던 삶의 마지막 장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담배연기 자욱한 지하실 단칸방에서 처음 우리를 맞으신 윤씨 할아버지는 술과 외로움이 친구의 전부였습니다. 그 분은 태어날 때부터 가족들의 버림을 받아 고아가 되었고 머슴살이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글을 배울 기회는 없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공사관에서 막노동을 하시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결혼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자식도 없었지요. 차갑고 야윈 윤씨 할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그 분께서는 "천국에 가면 마누라가 둘 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윤씨 할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그토록 소원했던 친구도, 가족도, 배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씨 할아버지는 담낭암이 갑자기 터지면서 힘겹게 지탱해 왔던 삶을 뒤로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씨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우연찮게도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로, 꿈꿀 수 없었던 할아버지의 삶을 대신하여 꿈꾸며 살아가야 할 운명의 계시라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암기로 지쳐가는 의대 공부 가운데서 잠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삶을 살겠다는 꿈을 꾸는 시간은 본과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평생을 닫힌 마음으로 살아온 윤씨 할아버지같은 분들이 깊은 외로움의 빗장을 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빈손인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함께 둘러앉아마자 살아온 이야기를 쏟아놓기 시작하며 미소 지으시는 할아버지들의 모습은 삶의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한국누가회 사회부 소모임이었던 '밝은 의료사회를 위한 누가들의 모임(밝누모)'활동을 하며, 더 많은 의료급여 1종 독거노인들을 방문진료의 대상으로 만나기 위해 의대친구들과 미아동 언덕길을 땀 흘리며

**내 그림자**  
 김택수(63,라스베가스)  
 한 평생 나와 함께 한  
 너  
 너무 고마워  
 저승에 가거들랑  
 내  
 너의 그림자 되어 주리라

올라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설문 조사를 하던 본과 2학년 여름이 생각 납니다. 본과 3학년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사회 문제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철학신학 책을 번역하는데 허리품을 팔았습니다. 본과 4학년 지역사회의학 실습 때에는,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인해 할아버지들의 병원 이용이 힘들어 질 것을 걱정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본과 시절 가운데 손꼽아 기억하고 싶은 추억들입니다.

**5. 주중 일과는 어떻게 되고, 주말에는 보통 어떻게 보내시나요?**

주중에는 주로 박사논문을 쓰고, 글에 대해 교수님과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다시 글을 고치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저는 제가 글쓰는 직업을 갖게 되리라 생각치 못했는데, 이렇게 full-time으로 글을 써보니, 지난한 퇴고의 과정이 괴롭기는 하나, 여러 생각들이 명료하게 정리되고 글의 내용과 표현이 풍부해지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열심히 글을 쓴 날에는 스스로를 위한 선물로 gym이나 수영장에 가서 땀흘려 운동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감이 임박하지 않은 주말에는 커다란 redwood가 뻗뻗한 숲을 찾아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개울물 소리를 듣는 hiking을 즐깁니다.



**6. 좋아하는 음식, 잘 하는 음식, 자주 먹는 음식, 남들이 먹어보지 못했을 법한 음식을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인도식 커리와 스시를 좋아합니다. 잘 하는 음식은 마땅히 없고, 간단한 찌개류를 해먹고 스테이크를 가끔 구워먹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오래 사신 선배님들은 에티오피아 식당에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못 가보셨다면 Doro Wot(매운 치킨 스프), Shuro(콩스프), Bayenat(야채모듬), Tibs(훈제구이) 등을 시켜서 인제라에 싸서 드셔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7. 최근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글귀, 괜찮았던 영화 등이 있다면 시계탑 독자들에게도 커뵌해주세요.**

Who'am I, without you?...  
 It is not as if an 'I' exists independently over here and then simply loses a 'you' over there, especially if the attachment to 'you' is part of what composes who 'I' am.  
 If I lose you, under these conditions, then I not only mourn the loss, but I become inscrutable to myself.  
 -- Judith Butler, <Precarious Life>  
 우리 모두는 서로가다음면에 계속)

# 이방인



노영일 (68, 시카고)

아래층 아내의 화실 벽에 걸린 몇 개 안 남은 내 그림들이 새삼스레 눈길을 끌었다.

가만히 손꼽아 헤어 보니 내가 이 그림을 그리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마치 타임캡슐을 열어 보는 기분이다.

인생은 따뜻한 봄날 졸다가 잠깐 꾸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던가.

문 틈 사이로 흰 망아지가 뛰어가는 것을 언뜻 본 것 같다고 하던가. 반백년이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시간이 화살보다도 빠르다.

다섯살 미만의 울망졸망한 4남매를 데리고, 도약을 위한 모든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왔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이었다.

어려운 시간들도 부지기수였고,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나 후회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민후 처음 10년간은 꿈을 꾸어도 무대는 아직 한국이고 꿈속에서도 내가 한국에 있어야하나 미국에 있어야 하나 혼동되더니 이제는 한국을 무대로 하는 꿈은 전혀 꾸지 않으니 내가 정말 미국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

이 든다. 그러나 직장을 떠나 사생활에 나오면 아직도 나는 별수 없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된다.

한국사람끼리 모여야 편안하고 감정소통도 잘된다.

미국사람 파티에 가보면 재미도 없고 할 말도 별로 없다. 미국인 교회에도 가봤지만 겉으로는 친절하면서도 무언가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거북하여 발길이 내치지 않는다.

서로 질투하고 까심하고 다투는 한이 있더라도 한 인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한국음식을 먹고, 한국신문을 보고, 한국방송국을 본다. 골프도 한국사람들과 쳐야 마음이 편하고 재미도 있다.

미국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이나고 묻는 경우가 많다.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어쩌다 한국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면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고 한다. 종종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한국인이요 이방인이다.

미국 온지 30년 만에 처음 한국에 나갔었다.

강남은 생전 처음 보는 도시였다.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대도시나 다름없었다. 이곳이 서울인가?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 같았다. 다만 거리거리마다 하나같이 같은 피부색, 검은 머리, 검은 눈을 한 나와 똑같은 사람



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호기심에 내가 어릴 때 살던 돈암동 집을 찾아갔다. 강북은 그런대로 옛날 건물도 더러 그대로 있고 하여 내가 살던 집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다만 내가 살던 집, 내가 뛰놀던 골목길들이 내 머릿속에 찍혀져 있던 사진보다 1/3 정도로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의 착각이란 참으로 간사한 것이다.

택시기사는 몇 마디 말이 오가고 나서는 “미국에서 오셨군요” 하고 금방 알아본다. 나는 틀림없이 표준 한국말을 한다고 자부하는데 내가 쓰는 말은 40년 전 말이요 무언가 다른 데가 있는 모양이다.

산천도 변화듯 말도 변한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여자들의 말은 억양부터 많이 달라졌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꽤 있다. 미국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제 영어단어들도 많다.

여러가지 생활습성도 많이 달라졌다. 나는 이제 진짜 한국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한국사람들은 미국 교민들을 같은 한국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 비디오나 영화를 보면 자주 미국 교민들을 현실도피자, 도망자, 파렴치한, 사기꾼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는 비아냥거리고 배타적인 경우도 있다.

여기서도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미국사람들은 한국사람이라 하고, 한국사람들은 미국사람이라 하는 영원한 이방인인가?

# 승축

정두현(61, 메릴랜드)

모난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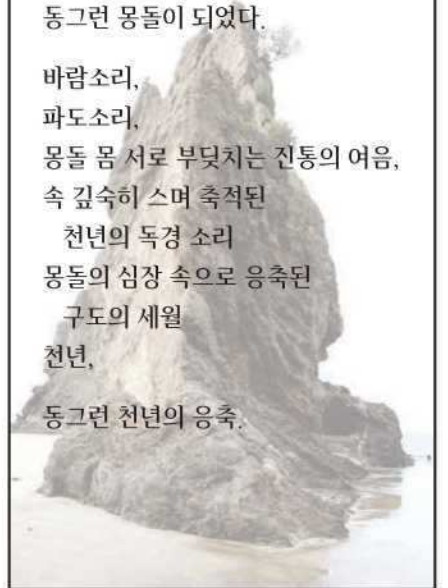
뼈 깎는 아픈 고행의 세월 천년.

끝 없이 출렁이는 파도의 거친 손길, 마구 휘두르는 파도의 광란, 침묵으로 품에 감싸 안은 인내로 견딘 천년.

동그런 몽돌이 되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 몽돌 몸 서로 부딪치는 진동의 여음, 속 깊숙히 스며 축적된 천년의 독성 소리, 몽돌의 심장 속으로 응축된 구도의 세월 천년.

동그런 천년의 응축.



## 총동창회 신설 Web Site 안내

snucmaaus.org 또는 snucmaaus.com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Web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명실공히 우리 동창회가 관할하는 Web Site가 9월 15일 추석을 기하여 Launching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어디서나 snucmaaus.org 또는 snucmaaus.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우리와 연결되는 다른 모든 sites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올릴 기사나 작품, 이야기, 사진들이 있으신 동문들은 snucmaawe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리는 글들은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Web Committee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Chair/Vice Chair 주광국(68)/남명호(81), 현 회장, 현 시계탑편집장, 조의열(66)사진담당이 Web Site Committee 구성원입니다.

<전면에서 계속> 서로에게 기대어 연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취약한 존재라는 점에서, 모든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나의 일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회 변화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What strikes me is the fact that in our society, art has become something which is related only to objects and not to individuals, or to life. That art is something which is specialized or which is done by experts who are artists. But couldn't everyone's life become a work of art? Why should the lamp or the house be an art object, but not our life?"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작품보다도 우리의 인생만큼 아름다운 예술이 있을까 싶습니다. 특히 선배님들처럼 오랜 경험으로 환자를 보는 art야 말로 예술의 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8. 미국내에서 여행 많이 다니셨나요? 기억에 남는 곳과 그 이유는?

저는 저희 동네의 Redwood 숲을 좋아합니다. 아마 이쪽에 사시는 다른 선배님들이 저보다 더 좋은 숲을 많이 아실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Yosemite, Muir Woods,

Big Basin, Henry Creek처럼 Northern California의 울창하고 거대한 redwood 숲이 있는 곳에서 하이킹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Sonoma Valley와 Napa Valley의 와이너리들도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Cuvaision과 Chateau St. John의 포도밭 풍경이 인상적이었고, 와인 테이스팅을 즐기기도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9. 나만의 건강관리 비법은?

저는 솔직히 건강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아직도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셔주세요. 다만 아침에 core 운동을 좀 하고, 가끔 gym과 수영장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 제 건강관리의 전부입니다. 앞으로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선배님들께 더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10. 2017년 올해는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이 될런지요?

올해는 지금 쓰고 있는 박사논문을 잘 마무리하고, 박사논문 일부 챕터를 잘 다듬어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에서 인문사회학, 국제보건, 의료인류학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 영화이야기



### 짧은 만남

박홍진 (영화평론가)

아름답고 가슴 아픈 로맨스 영화 하면 언뜻 생각나는 것이 ‘카사블랑카’와 ‘의사 지바고’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영화는 영국의 명장 데이빗 린(아라비아의 로렌스, 파이강의 다리)이 만든 흑백 소품 ‘짧은 만남(Brief Encounter, 1945)’이다. 영국의 각본가이자 극작가인 노엘 카워드의 단막극 ‘정물화(Still Life)’가 원작으로 평범한 가정주부 로라(실리아 존슨)와 역시 기혼자로 이상주의자인 의사 알렉(트레버 하워드)의 이루어지 못할 사랑의 이야기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의 폭력행사가 일어나면서 둘이 짧은 만남 동안 겪어야 하는 희열과 고통과 슬픔을 시적 아름다움으로 그렸다. 둘은 한 작은 도시 밀포드의 기차역 카페에서 처음 만난다. 눈에 티가 들어가 불편해하는 로라에게 다가온 알렉이 자기 손수건으로 티를 빼내 주면서 둘의 만남이 시작된다. 서로 반대 방향에 사는 로라와 알렉은 각자 쇼핑과 병원 근무를 위해 매주 목요일 기차를 타고 도시에 왔다가 각기 저녁에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간다. 로라가 알렉과 이별하고 귀가한 날 회상 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는 결혼한 사람들이 뒤늦게 찾은 참사랑과 행복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견디어야 하는 거짓과 죄의식, 수치와 비참함을 고요하면서도 가슴에 상처가 나도록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눈이 큰 로라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 사랑이란 폭력적 행위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로맨틱한 여학생처럼 희열하다가도 “우리가 서로를 자제할 수만 있다면”이라며 울음을 터뜨린다.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알렉의 말처럼 둘은 이미 이성을 찾았겐 늦어버렸다. 그래서 로라는 알렉의 “더스데이”라는 말에 “더스데이”라고 대답한다. 두 사람은 키스 이상의 행위는 저지르지 않지만 사회 규율이나 도덕적 개념으로 볼 때 둘의 사랑은 불륜이다. 로라가 알렉을 사랑하게 된 것은 결코 자신의 결혼생활이 불행해서가 아니다. 로라의 남편은 거의 완벽한 모범 남편이다. 감정이 로라처럼 섬세하지 못하고 음악에도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죄라면 죄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라프마니노프의 서정적이요 밀려오는 파도의 무게처럼 서러운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이 로라와 알렉의 못 이룰 사랑을 애처롭게 동반해 준다. 린 감독은 이와함께 늘 이별의 미련이 머무적거리는 기차역과 달리는 기차와 기적 소리 그리고 엔진과 바퀴 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 아름답고 슬픈 ‘기차역 영화’를 만들었다. 기차역에서 두 연인이 헤어지는 못 이룰 사랑을 그린 또 다른 영화들은 베니스를 무대로 역시 린이 감독하고 캐서린 헵번과 로사노 브라지가 주연한 ‘여정(Summertime, 1955)’과 로마의 기차역에서 일어나는 이탈리아 총각(몽고메리 클리프트)과 미국인 유부녀(제니퍼 존스)의 이별을 그린 ‘종착역(Terminal Station, 1953)’이 있다. 이와 함께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가 나오는 비극 ‘애수(Waterloo Bridge, 1940)’에서도 런던의 기차역 워털루 스테이션이 중요한 장소로 나온다. 사랑의 영화는 대부분 비극이 많은데 마지막 장면이 기차역에서 일어나면서도 보기 드물게 해피 엔딩인 것이 파리를 무대로 한 나이 먹은 미국인 플레이보이(케리 쿠퍼)와 첼로를 켜는 옛된 파리지연 처녀(오드리 헵번)의 사랑을 그린 ‘하오의 연정(Love in the Afternoon, 1957)’이다. 이 영화의 주제가 ‘매혹(Fascination)’은 한국에서도 크게 유행했었다.

- 편집자 주: 34차 학술대회 Non-CME 에서 발표한 내용임.

# 문둥골 풍경

이수인 (63, 남가주)

- 아저씨 잘 하시네요.  
- 부처님 덕이여,  
나무 관세음보살.  
처음 보는 아저씨 얼굴엔 미소와 환한 희열이 가득 차 있었다. 이마에 백호를 단 것처럼 빛이 나는 것이다. 무량세계에 광명을 ...  
평생을 산지기역을 하든 그에게 평생 일구든 기회가 닦친 건 불과 몇 년 전이다.  
내가 문둥골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버지는 예산에서 그때만 해도 험한 공주로 가는 차동고개를 넘어 매년 시제를 지내러 가는 생각이 난다. 가문 중에 일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던 일은 아버지가 혼자 맡아서 했다. 아버지의 묘 이장을 아저씨가 주선한 뒤 오랜만에 귀국차 들렀다. 목가적 풍경이라기보다는 지루한 가난의 잔영이 아직도 서려있는 조그만 동네. 그래도 옛 어른들은 이 산골짜기가 난을 피하기 좋은 피난처라 믿고 여기에 일가터전을 잡은 것이다. 차가 겨우 한대가 지나갈만한 논둑길을 지나서 파란 지붕의 오래된 낡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저씨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 참 재수가 좋았다. 미리 연락도 없이 도착했는데.  
종일 땀벌에 그으른듯한 갈색빛 얼굴, 희끗한 머리를 짧게 깎은 깨끗한

인상의 아저씨였다. 치장이 없는 조그만 아줌마는 웃음뿐 이었다. 마디가 굵어진 손은 거칠었다.  
허세 없는 늙은 농사꾼들.  
- 우리 집안은 술을 할 줄 알아야 되야.  
권고에 못 이겨 들이킨 농주 뺨에 나는 곧 몽롱한 상태에 빠졌다.  
아저씨의 얘기가 시작된다. 그의 눈엔 무엇이 그의 혼을 일깨운 것처럼 빛이 나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이 마을뿐 아니라 군소재지까지 합쳐 동네 유지가 꽤 있었다. 자랑할 상대가 다 소진한양 나를 기다렸듯이 시작한 이야기는 계속됐다. 짙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몽땅 장학금에 썼단다.  
- 혼자 행복하던 부끄러운 일여,  
지금은 논밭인 동네 앞길을 크게 넓혀 고속도로와 연결시키고, 기념품 상점과 정자를 세울 계획을 내게 말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을 불렀단다.  
- 다 옥편 덕이여.  
오십 년전 아버지가 선물로 준 옥편이 조그만 책상위에 동그라니 앉아있었다. 줄곧 같은 자리에 있었던단다.  
- 자네도 공부 좀 해야지 하면서 주시더구먼.  
- 그 옥편이 내 생활을 바꿔놨어.  
그 옥편 때문에 장학금 줄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가.  
땀을 대어한 사찰 비즈니스가 턱없이 잘 된단다.  
우리 조상이 예견한 풍수가 옳았다는 얘기가. 아버지는 이런 변화가 여기 올 줄을 예상 못했을 꺼다.  
조그만 동산을 넘어서 사찰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것은 장마당같이 많은 방문객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반갑게 아저씨를 반겼다.  
열반을 상징하는 불탑이 세 개.

온몸이 황금빛인 사람 크기의 불상들이 군데처럼 높가에 서있었다. 마당엔 굉장히 큰 좌불 와불의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상.  
- 꽤 큰데요.  
- 이삼층은 될 걸.  
입상의 예쁜 미륵보살상이 명상에 잠긴 듯 서있었다. 본전엔 좌불 여래상이 광배와 수미단위에 앉아 있고, 박트리아인의 헤라클레스가 변신한 금강역사와 사천왕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조그만 방에 들어가면 아기불상이 인형처럼 진열 돼 있고 방문객들은 자기 이름이 아직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비슷한 방들이 줄지어 있었다. 시주가 클수록 불상의 크기가 커진단다.  
아낙은 금빛 옷을 입고 수명장수 불공을 드리고 있었다.  
삼배, 사배.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겠지. 중세의 귀족들도 열심히 독방에서 기도하다 죽었다. 돌아보면 내가 콜도바의 사원을 방문했을 때 현금한 액수에 따라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카필라의 크기가 달라지는걸 보았다.  
운동 황금빛의 카필라.  
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황금빛의 독방이 필요했을까.  
내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는 천명의 신도를 가지길 기도했다.  
- 천명이야야 되나.  
그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겠지. 울음으로 회개의 미학을 보이려는 그때 그 목사를 뒤로 하고 나는 교회를 떠났다.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마을을 떠났다.  
보름달이 광배처럼 빛났다.

# 팔손 할배의 마라톤 예찬

아해 김태형(63, 조지아)

발톱 빠지며  
무릎 깨지며  
가슴 터지며  
사십 정상 달려 온...

(저, 늙은 이  
또 달리네  
아마도 미쳤지)

누구도 모르는  
가뭇한 몸  
맑은 맘  
땀방울 정진

긴 세월, 그토록 이어 온  
나의 길  
나의 삶  
나의 기도!

- 아저씨 잘 하시네요.  
- 부처님 덕이지.  
나무아미타불.  
겸허하게 행복한 사람을 보는 것은 꼭 기쁜 일이었다.  
릴케의 소설 말테의 수기엔 이런 말이 있다.  
신은 유용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하이티(Haiti) 소고

안세현 (68, 델라웨어)

본인은 2010년 대지진 후 두 번째 아이티 의료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다. 남미의료선교에는 익숙해있었지만 이곳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어서 경험 많은 김홍완(81년 졸업)동문의 안내가 있어서 가능했다. 그런데 공요롭게도 허리케인 Mathew가 생겨서 우리 일정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우리는 뚜렷한 기도제목을 받았다. 출발 전 준비 모임에서 송중남님이 민수기(13장 1-2절)를 인용한 것처럼 '아이티'에 사명감을 가지고 탐지하고 오도록 다짐하면서 우리는 출발했던 것이다. 짐작은 하고 있었던 열악한 생활환경이었지만 지난 번 처럼 이번에도 왜래진료와 고아원 방문 등을 하면서 주민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이티의 상황은 7년 전에 보았던 것보다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방치된 무너진 건물들, 비포장도로, 쓰레기가 썩는 개울, 그곳에서 활개치는 돼지들, 걸어다닐 수도 없이

질척거리는 악취가 나는 골목길, 더러운 손으로 우리들의 손을 잡는 불결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옛날의 사변 중에 우리들이 살던 관장집보다 못한 초라한 집들이다. 실업률도 70%이니 살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 7년 전이나 마찬가지였다. 함께 방문했던 대전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에게 물어 보았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였다. "불도저로 싹 밀어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의 대답이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한 번 밀어도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 보았다. "이 땅이 40년 후 지상의 천국"이 되도록 비전을 세워주자. 이웃인 도미니칸 공화국의 Punta Cana같이, 멕시코의 Cancun 같이 말이다. 그곳들처럼 일류 호텔과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관광지로 이곳을 탈바꿈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되려면, 첫째; 이 나라에는 우선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교육을 받은 지도세력이 이웃인 도미니칸 공화국처럼 한때는 있었지만 오래 전에 다수의 민중들에 의하여 모두 제거되었다. 그래서 지도세력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제 이 나라는 미래를 이끌어갈 양심적이고 능력 있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선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호금

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말이다. 하루빨리 UN 등 여러 자선단체들의 도움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치안이 안정되어야 한다. 강도와 총격전이 수시로 벌어지는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나라야말로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며 그 사람들이 민주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더 좋겠다.  
셋째; 그들의 언어를 바꾸어야 한다. '크레올' 언어는 불어 사투리로 외국인 누구도 알아듣지 못한다. 교육을 통하여 이들에게 영어를 권장해야 한다.  
넷째로 교육열을 높여야 한다. 우리 김승돈님이 세운 크리스찬 학교는 12학년 까지 학생들이 있고 아이티에서는 가장 알려진 명문에 속한다. 그리고 이 속에 의료진료소가 있다. 어린 학생들이 단정한 교복을 입고 컴퓨터실에서 공부하고 어떤 학생은 악기를 연습하는 모습도 보이는 학교이다. 100여년 전 외국인교사들이 들어와서 경성, 평양, 함흥에 학교를 세우고 서양병원을 세웠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이켜 보게 된다.

# 친구 생각

나두섭(73, 남가주)

눈덮힌 나무가지 같이 싸늘하던 겨울날은  
산들거리는 봄바람에 자리를 내어주고  
어느듯 피어난 보고싶은 친구같은 분홍빛 목련꽃  
지루하던 봄비가 그친후 지평선에 걸린 무지개  
오색 영롱한 색깔에 마음이 매료되니  
근심은 안개처럼 사라졌네  
보기만 해도 좋은 정다웠던 친구들  
지금은 어디서 무얼할까  
하늘에 걸린 무지개 보면서  
혹시 내생각도 하려나

우리 모두 그들의 희생적인 도움이 있었음을 감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국민들은 종교적으로 깨어나야 한다. 그들이 믿고있는 Voodoo는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무당종교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들에게 사랑에 바탕을 둔 기독교 같은 종교가 친절히 소개되면 영적인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싶다.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40년 후의 아이티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천국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GDP \$800)로 그냥 머물러 있을까? 이들을 돕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아이티 주민들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에서 벗어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안세현(68)과 진료실



맨발로 사는 가난한 아이들



김홍완(81)과 개천가



낙(Mae Nak)은 동네청년 막(Mak)과 결혼한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중 이웃 나라와의 전쟁 발발. 막은 징집되어 마침 임신한 매낙을 두고 떠난다. 싸움터에서 막은 심한 상처를 입고, 매낙은 애를 낳던 중 애와 함께 죽는다. 마을 사람들이 가련한 이 모자를 물어준다. 상처에서 회복한 막은 집으로 돌아온다. 반갑게 맞는 아내와 아들. 키스도 하고 섹스도 한다. 어떻게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으랴 하는 막에게 너는 죽은 내 아내 귀신하고 같이 사는거야 하고 귀썰 주려는 사람마다 이웃이든 친구이든 머리 내려뜨린 매낙의 긴 손톱으로 내장이 후벼 파진다. 어느날 진실을 알아버리고 마는 막 이승을 떠나버린 아내에의 사랑 귀신에 대한 두려움! 나보고 어찌라는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방황하다 들어간 데가 절, 귀신이 들어갈 수 없는 절이다. 미친 듯 막을 불러대는 매낙. 저 보이지 않는 한계. 이승과 저승의 한계는 이렇게 뚜렷한걸 어이하라 어이하라. 아마 오페라라면 이쯤에서 소프라노가 귀칭 찢어지는 아리아라도 한 곡 뽑아 제끼렸다. 공포해진 매낙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살해된다. 結: 高僧의 강도높은 呪文으로 격렬했던 매낙의 넋은 가라 앉혀진다. 너는 내 생애 막과 다시 만날 수 밖에 없지 않겠니? 이승에 대한 집착의 사슬을 끊고 드디어 자유로워진 그녀의 넋은 저승으로 너풀너풀 사라진다. 너풀너풀은 내 상상이다. 그렇게 사라질 것 같다. 이승에 아무리 한이 맺혔더라도 기껏 쫓아가는 치타처럼 맹속으로 저승으로 달려가진 않으리라. 하여간 저승으로 간다.

이상이 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또 사랑받고 있다는 女鬼 매낙 전설의 개요다. 이 달콤쌉사름한 이야기를 대중매체가 가만 놔뒀을리가 없다.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십여번이 넘고 그중 한 편은 태국 영화사상 흥행대박 3위에 올라있었다. 매낙 전설의 배경은 방콕 근교. 전설 당시만해도 숲이 우거져 으실으실 했던 데라 한다. 그리고 막이 들어갔던, 매낙의 넋이 진혼됐던 절은 왓 마하탑(Wat Mahatub)이다. 왓은 절(寺)이다. 지금은 번잡한 방콕 시내다. 절의 경내에 있는 매낙의 사당에선 매달 장례식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약간의 조위금(?)을 내며 스스로의 복을 빈다. 장례식의 집전은 스님들이 한다. 절의 경내에 귀신의 사당이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귀신의 장례식도 신기하고 그 장례식이 매달 벌어진다는 것도 신기하고 귀신 장례식의 집전을(無我 無常을 주장하는) 상좌 불교의 스님들이 한다는 것도 신기한 아이러니다.

민속과 정통불교의 혼재 아니 주술과 부적의 정령신앙(애니미즘), 브라만, 그리고 엄격한 계율의 상좌불교가 섞여 서로 부딪치는 모순에 별로 걸리적 거려하지 않는 것 같다. 최소한 여행객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흑자는 애매한 것에 대한 관용(tolerance for ambiguity)이라는 고답한 해석을 붙여 놓기도 한다는 이 미신이, 애니미즘인가 몰랄론인가 하는 귀신에의 믿음이 웃기네 하면서도 여행객의 맘을 당긴다. 삼라만상 개개는 고유의 넋을 지

니는 것 이니라. 영화 잠 못 이루는 시애틀의 맥 라이언도 그놈의 사랑이라는 마법의 감정이 안 일어나는 바람에 월가에서 잘 나가는 약혼자 버리고 애 딸린 홀아비 톱 햄크스를 찾아 앰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지 않나.

매낙의 살(煞)을 풀어준 스님이 솜뎃 또(Somdet To)라는 스님 -태국에서 제일 널리 알려진 사랑받고 존경받는 스님이라고 위키피디아는 소개하고 있다. 그 스님이 유명한건 실달 태자의 머리에 섬광처럼 번득었던 무상 이러던가 무아라는 불교 중심 교리의 개성있는 이해 라던가 독심있는 실천 이 아니라 주술의 달인으로서 그가 행한 이적 그리고 그가 만든 부적(호신부)의 효험 때문이라나. 수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아니 귀신의 넋을 달렸고- 민중을 전쟁의 공포에서 보호해주었고 아픈 사람들의 곁에서 그 불안을 덜어 주었다는 것이다.

1893년 불란서 함대가 짜오쁘라(Chao Phraya) 강을 타고 방콕으로 진주한다. 병인양요 보다 30 여년 쯤 뒤다. 하지만 그들은 대포 한 방 쏘아보지 못하고 물러난다. 당시 태국에는 대원군같은 배짱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탓에 불란서 배에다 대포를 쏘아대지도 못했는데 말이다. 어떠한 군사적 물리적 접촉이 없이 불란서 배는 물색없이 물러나고 만 것이다. 왜? 양과들이 침입이 짜오쁘라 강을 타고 진주할 것을 예견하고 돌아가시기전에 이미 스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부적을 강바닥에 매설해 놓으셨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태국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물론 시험답안지에는 함대의 대포들이 황궁을 겨냥하고 정열해있는 중 이루어진 당시 양국 정부간의 막후 협상 굴욕적인 조약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야 할 테지만 말이다. 수 많은 부적이 아직 묻혀있을런지도 모르는 그 강을 나는 대중교통 수단인 배를 타고 지금 오르고 있다. 배의 허름하기가 60년대 서울의 시내버스를 연상시킨다. 천정에 매달린 손잡이를 잡고 서있는데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한다. 下校하는듯 싶은 교복의 옛된 여고생에게 왓라캉(wat Rakhang) 한다. 수줍게 고갯짓으로 가르킨다. 강변에는 건물들이 어수선하게 늘어서 있다. 이게 악명높은 황하의 휴탕물이로구나 했던 그 누렁던 물보다 탁도가 한술 더 뜨는듯 하다. 이곳 저곳 무더기 지어 떠있는 물풀들이 지지분함 어수선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강 양안에는 보석들이 보석보다 더욱 값진 절들이 꼭꼭 박혀있다. 주위의 지지분함 정돈 안된 점이 보석들을 오히려 빛나게 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왓라캉(Wat Rakhang)으로 향하고 있다.

왕과 나로 알려진 몽곳(Mongkut) 왕이 28년간의 승려생활을 접고 왕으로 즉위하자 승려시절 師兄 '또' 스님을 불러 황궁에서 강 건너편 왓 라캉의 주지로 임명하며 솜뎃이라는 칭호를 수여한다 그래서 솜뎃 또 라던가. 솜뎃 또 스님의 출생에 대해 이런 전설이 있다. 후에 라마 이세가 되는(즉 몽곳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장군이 전쟁중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골 소녀와 사랑에 빠진다. 네가 아들을 낳

거던 서울로 보내라 이것을 보여주면 내 아들인 줄 알겠노라 하며 벨트를 풀어준다. 이백년 남짓 전(1787)에 태어난 스님의 출생이 2000년전 고구려 유리태자와 왜 이리 같은가. 하여간 솜뎃 또에게는 왕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였나 솜뎃 또는 승려가 되기 위한 평민에게는 열려있지 않은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 빨리어에 능통 빨리어 주문을 창작/개작까지 했다. 매낙의 넋을 달랜것도 이 주문이고 스님이 외운 주문의 C.D.는 영원한 베스트 셀러란다. 솜뎃 또 스님은 몽곳 왕의 친구이자 조연자 -손소리 담당- 였단다. 호신부(護身符)는 점토로 만들어진다. 점토에 스님이 드시던 밥알 하나 혹은 의복의 실밥 하나라도 들어가게 되면 호신부의 힘은 막강해진다. 구어진 다음에는 긴 주문의 암송으로 점토 호신부의 힘을 더욱 강화시킨다. 지금도 이 절 왓라캉에선 호신부를 만드는 주문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주문소리로 강화된 물은 성수로 비닐 봉지에 넣어 팔린다.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이야. 과학이 완전히 접수한 걸로 아는 이십일세기에 말이야. 과학이 접수? 아니올시다 인것 같다. 미신을 대체할 만한 체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 듯 싶지 않은가?

프로이드는 사유의 전능성(omnipotence of thought)으로 애니미즘을 소위 미신을 설명했다. 인류 최초인 동시에 그중 완벽했던 체계의 세계관이 였다고 그의 저서 토템과 타부에서 주장하고 있다. 종교로 나중에는 과학으로 이행 되었지만 이들이 결코 대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으로서만 남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이 미신의 유전자는 인류 모두의 바탕에 흐르고 있다고 또 유아기의 사고 또 우리 무의식의 주요 소통 방법이라고.

왕궁(grand palace)에 들어서면 이건 정말 마법의 세상이다. 빨강 노랑 주황 자주 초록 백색 흑색 금색들이 어울려 내는 좀 요란한게 아닌가 싶은 분위기가 오즈의 마법사의 에메랄드 시티는 저리 가도 한참 가야 한다.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를 형상화한 건 아닐까 하는 상상도 못해볼건 아닌 것 같다. 좀 감각적이긴 하지만, 이게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진짜 왕과 왕비가 살고 있고 그 왕과 왕비는 평판 좋지 않은 왕세자도 있네. 에메랄드 부처가 있는 프라깨우 절로 들어가기 전 거대한 야차(夜叉)가 눈을 부라리고 있다. 왕년에는 사람도 먹고 용까지 먹어치우는 식성을 자랑하던 처지였는데 부처님의 교화를 받은 이래 불법 부처님 수호자의 보직을 받고 있다는 야차. 마음은 착해졌는지 모르겠으나 외모는 흉악한 그대로다. 에메랄드 사원의 '위환'으로 들어간다. 우리나라 대응전이다. 위환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에메랄드 사원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원(院)이 아니란다.

### The Final Farewell

Young C. Shin (59, Maryland)

I went back home, halfway around the world  
To see my aging and ailing mother  
It was in the fall of 1979

After a week of staying with her  
Finally the date for my return came  
Too short week I could not hold in rein

Although I begged her to stay in her bed  
My mother staggered out to the porch  
To see me off, holding tight on her cane

When she managed to reach the front door  
This time, from my standing posture  
I bowed deeply once again

When I raised my head, I saw her tears  
Dripping down from her wizened cheeks  
She struggled to smile, in v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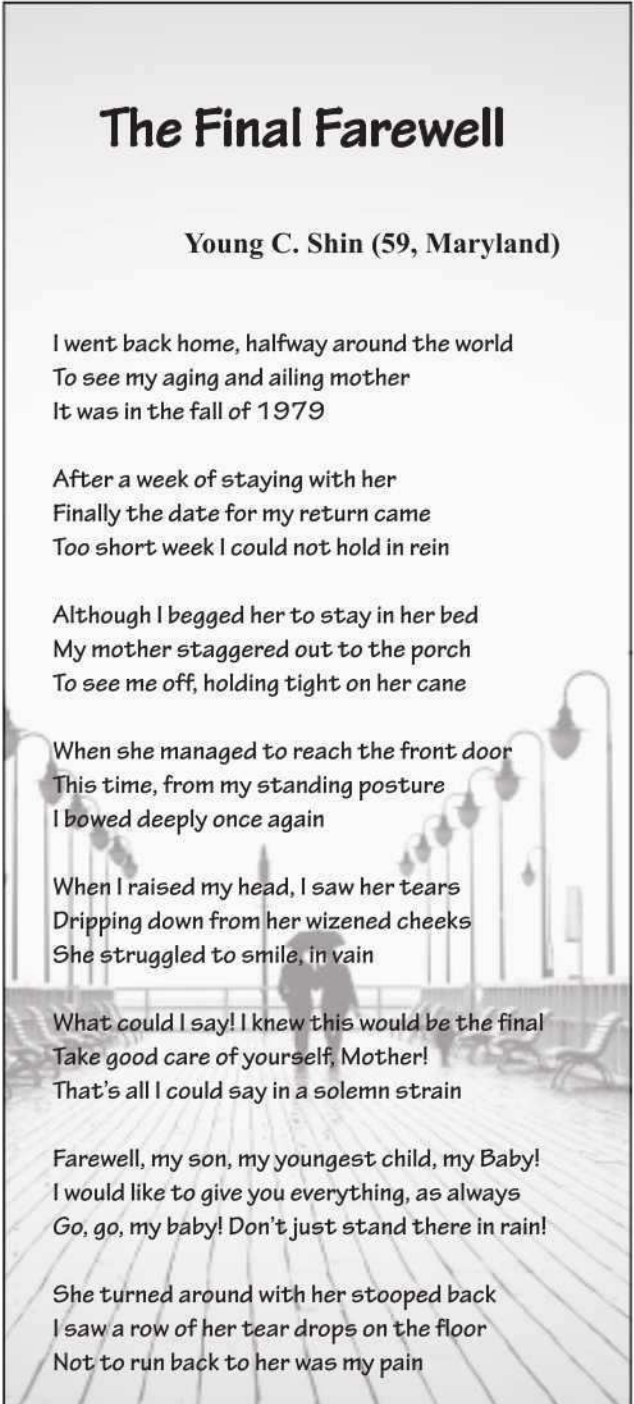
What could I say! I knew this would be the final  
Take good care of yourself, Mother!  
That's all I could say in a solemn strain

Farewell, my son, my youngest child, my Baby!  
I would like to give you everything, as always  
Go, go, my baby! Don't just stand there in rain!

She turned around with her stooped back  
I saw a row of her tear drops on the floor  
Not to run back to her was my pain

스님이 살고 있어야 왓의 기준에 달하는데 스님이 살고 있지 않으니 왕궁의 (기독교 식으로 말하면) 채플쯤 되나 보다. 에메랄드라고 하기에 너 무 푸르죽죽한게 아닌가 하는 피부의 부처가 저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다. 주먹만한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요란을 떠는지 모르겠더라 년전에 방콕을 다녀갔다는 대학 동기의 촌평이다. 주먹보다는 크다. 옥이지 에메랄드가 아니다. 중국판 안내서에는 청옥불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콩나물 시루 같은데서 한 콩나물로 서서 밀려서 들어가고 밀려서 나왔다. 그렇게 보인다. 방콕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라는데서 별 감동느끼지 못한채, 초록빛 피부에 돌출한 송곳니의 야차, 그 배경으로 펼쳐졌던 금빛 돛 위로 하늘을 향해 솟구쳤던 황금 첨탑의 인상이 에메랄드 부처보다 더 맹렬하다. 맹렬했던게 황금 첨탑이었는지 教化란 去勢를 통해 걸 걸질만 남은 야차에 대한 측은지심이었던지는 알쏭달쏭하지만. 그래 난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니지! 더 이상 이곳을 기술하려는 건 이 마법의 장소에 대한 모독이 되지 않을까, 마법의 장막이 한 꺼풀이라도 걸힐까 우려되니 여기서 그치자. 팡! 소리라며 사라지기 전에 그만 나가자.

여귀의 사당이 절 경내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고, 스님의 호신부가 수억대로 팔리고 황궁에는 검은 얼굴의 야차가 불거진 눈을 부라리고 있는 이 도시에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규모의 흥등가도 있고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을 꼭 빼닮은 재래시장도 있고 신세계 백화점 몇개 합쳐 놓은 규모의 거대한 백화점도 있다. 이십일세기에 아직도 마법과 현실이 어깨동무하고 사이좋은 도시 방콕, 죽기 전에 한 번 더 와보고 싶은데가 한 군데 더 늘었다.





# 설거지 有感

김병오 (69, 버지니아)

수도꼭지 틀어놓고 압전히 물 흘려 그릇을 닦으면 그다지 일이랄 게 없다. 썩어 썩어 있다 해도 온도 맞춘 물과 비누가 하는 일이고 부지런히 손 돌려 말끔히 닦고 그릇 따라 정리를 하고 나면 그 행복감이 쏠쏠하다. 그 완결감이 길지는 않지만 가끔 불면의 밤이라든가 번비가 주는 불쾌감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카타르시스로는 최고의 집안 일이 아닐 수 없다. 살림살이의 완성은 설거지라고 하지 않던가. 늙어가며 때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조급함을 쿨하게 가라앉히는 다목적의 관참은 효과들도 있다. 아직 다소 남은 문제는 오래 동안 주입된 알량한 남성 자존심이 해소되지 않고 시답지 않게 군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나를 이 즐거운 일에 소 물 먹이듯 끌어와 눈물겨운 기쁨을 주는 것은 도시 벗어나 자비심인가 아니면 아직도 분을 삭이지 못한 보복의 성격을 듬뿍 담고 있는 것인가.

아무튼 제대로 설거지에 삼시 세끼 종사하게 된 일은 길게 잡아 6개월 그것도 만 70을 바로 넘기고 얼마 지나서이다. 晩學으로 치면 이만한 만학이 또 없다. 거의 돈오에 가까운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지만 확연히 달라진 자발적인 설거지 異變에 인식하지만 서서히 믿음의 눈치를 보이며 안심을 하기 시작한다. 밖에 나가 시큰둥해 하는 이웃 친구들에게 짐을 튀기며 칭송의 말을 쏟아 놓는다. 나를 영구히 붙잡아 놓으려는 의도가 역력히 보이는 계산된 칭찬임은 두말 할 것 없지만 자기 생각으로도 돌연한 변화 앞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없지 않다. 늘그막에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면 불吉한 징조일 수 있다는 주변의 시기 어린 충고를 듣고 와서는 가끔 나의 설거지 일을 중단시키며 수상한 변화를 부정하기도 한다.

이제라도 슬쩍 免避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손등을 굽어 주부습진처럼 만든든가, 물값 오르게 철철 물을 쓴다든가 쉽게는 접시그릇 한두 개 깨는 일로 당장 떨어 날 수가 있긴 하다. 그러나 뛰어난 손놀림과 미끄러움을 예측하는 조심성이라든지 의술로 단련된 완벽주의적인 앞뒤 처리능력은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장인의 경지를 이미 안타깝게도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설거지 하나로 가정의 평화, 나아가서 내비효과처럼 번져 세상의 평화가 심지어 우주의 평화가 찾아 온다면 그보다 손쉽고 보람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남녀평등의 고상한 염원이 이루어지는 꿈 좁은 꿈도 아니다.

집안의 산적한 일들을 얼추 따져 보니 설거지 일은 해 보았자 생색도 티도 안 나는 실속 없는 일이로구나 하는 계산은 이미 젊은 시절에 내렸던 명백한 결론이었다. 내 생각은 그랬다. 설거지 일 하나로 무슨 큰 은덕을 갚을 수 있겠는가. 끔찍이 싫어하는 내 인생의 金言인 공연한 爲善은 피해가자, 차라리 말자, 그런 것이었다. 당연히 불공평을 따지고 들 때마다 늘 이성적인 대화를 기피한 이유도 이런 사실과 유관하다. 결코 빈말이 아니다. 젊어서부터 설거지를 했었다면 아마도 그 오만방자함이 벌써 하늘을 찌르고 집안을 뒤엎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시작한 일이지 만 웬지 분한 마음이 없을 수 없다. 기대치를 넘게 더욱 휘파람 曲盡하게 불며 기쁘게 일하는 것이 이제 유일한 분풀이 방법이다. 동네방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속이 불편해 지기도 한다. 늙은 집도 지고 가기에 억울하고 힘든 판에 요즘 젊은이들처럼 새 인생 살라고 하면, 몇 달 정도의 한시적 깨달음이나 굴욕도 아니고, 이런 고역이 과연 늘그막에 가당한 것인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평생 뼈 빠지게 굴종을 참고 노동하여 이제 겨우 쉬고 살만한 계제에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크게 고향을 치다 악몽에서 깨어나 외롭게 냉수를 마시던 어제 밤 일이 생생하다. 아침에 설거지 거리 앞에서 속마음을 보일까 봐 두려운 마음에 차를 끓이고 빵도 구워 놓으며 삼삼개처럼 꼬리를 감추기도 한다. 이 뒤늦은 번덕은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것일까. 고약한 유전자 돌연변이라도 일어난 것일까. 그렇다면 무엇을 잘못 먹은 것일까 아니면 혹시 먹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남성 호르몬의 과소분비, 치매의 초기 대뇌 피질에 혹시 미세한 病變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한쪽 눈꺼풀이 내려 앉은 것 외에는 아직은 별 이상이 없다. 아니면 요즘 佛經을 부쩍 읽더니 무슨 悟性이라도 운 좋게 찾았다는 것인가. 그것은 더욱 아닌 것 같다. 아니면 결국 늘그막에 살 길을 찾아 미리 머리를 조아리는 불가피한 형국이라도 되었던 말인가. 평생토록 타산적이다. 아무튼 내심 여기저기 회자하는 幸福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것의 실체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은근히 미소를 짓기도 한다.

설거지 입장에서 하나 더 나아가 세상 모든 不和, 갈등과 불일치가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얼굴이 화끈 뜨거워 진다. 이제라도 이기심에 절은 고정관념을 멈추고 마음을 열어 일단 행동하는 良心. 그리고 비로서 보이는 그 가치와 의미를 긍정적으로 고민 해보고 두말없이 실천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변심의 대가로 이만한 황재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인생숙제 거러도 결연히 도전장을 내고자 하는 의욕이 때때 없이 마구 넘친다. 창문에 쏟아지는 아침 햇살 같은 평화와 행복의 기쁨이 우리 부부 사이에 차오른다면 뒤늦게 정말 대박도 이만한 대박이 어디 있겠는가. 이왕지사 설거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는 날까지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이다. 행복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거지를 하니가 행복해진다 라고 충만한 자기 암시를 끊임없이 하면서 말이다. 幸福은 해석이다

늦은 化合이 민망스럽게 꺼들기 시작하는 요즘이다.

#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춤

서운석 (68, 버지니아)

## The most beautiful couple's dance

님의 율동을 따라  
그녀는 춤추는 꽃이 되었다  
응시하는 눈동자는  
선을 그리며 시시각각으로  
새로운 그림을 선물한다  
무대를 둥글둥글 돌면서  
달콤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콘을  
청중들에게 쥐어준다  
하나 하나 친절하게

진한 향수가 뿌려진다  
자유로운 동작의 지속되는 조화  
두 몸매가 하나로 연결되는  
떨어질 수 없는 손  
그 고리의 신호를 따라  
다채로운 화폭이 전개된다  
화려한 한 쌍  
소중한 생명에  
축복이 눈부시게 창조되는 밤에

하늘로 날아간다  
날개로 춤추며 날아간다  
태양보다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간다  
은하수 바다에서  
흐르는 별이 되어 날아간다  
대연회장을 장식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춤을 따라  
잊혀지지 않을 따뜻한 그 마음에

Responding to his rhythmic motion,  
She became a dancing flower.  
Her steady gaze draws the lines  
To create a painting,  
Different ones as time passes.  
Dancing around the stage,  
They give to the audience the ice cream cones  
That are delicious and sweet  
One by one, kindly.

When the thick perfume is sprayed,  
The continuous harmony by the free movement and  
The signals from the ring of their inseparable hands  
Create the new paintings in various ways.  
The graceful couple,  
The precious life,  
The night when the splendid blessing is being created.

We all fly,  
Fly with our wings,  
Passing the sun,  
Far away, further away we fly,  
On the ocean in the Milky Way  
We float as their stars.  
The Grand Banquet is full of joy  
By the most beautiful couple's dance,  
By their good heart,  
Unforgettable.



## 농담 골목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서 여자 직원이 내게 하는 말이, 자기 곁에서 일을 하는 남자 직원이 손님들에게 경솔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좀 충고를 해 달라고 했다. 내가 그 남자에게 “나는 중학교에 다닐 때 유도 선수였는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라고 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저도 젊었을 때 유도 선수였는데요. 저는 남을 무서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노용면)

내가 결혼식에서 주례사를 할 때면 두 가지를 꼭 강조한다. “서로 사랑하시요.” 와 “서로 참으시요.” 이다. (노용면)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인 전혀 거주하고 있지 않는 미 중서부 지방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였기에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 3세의 한국 청년이 한국에 살고 있는 여인과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하와이에서 첫날밤을 보내게 되었다. 뜻밖에도 신랑의 서비스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 그 여운을 잊지 못한 신부가 다시 신랑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신랑에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염두가 나지 않자 막 잠을 청하려는 신랑을 외락 겨안 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앙 콜 ...” - (이덕승)

### 치매 예방법 단, 십, 백, 천, 만을 소개합니다

- 단: 하루에 단 한번 이상 좋은 생각을 하거나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십: 하루에 열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전화상으로나 카톡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Loneliness는 금물)
- 백: 하루에 적어도 100자의 글을 직접 쓴 것입니다.  
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시나 수필 등을 쓰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날의 일기를 쓴 것입니다.
- 천: 하루에 1000자 정도의 글을 읽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도 좋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익되는 좋은 글을 읽는 것입니다.
- 만: 하루에 1000보를 걷는 일입니다. 걷는 것 이상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이상 5개 조항을 작심 3일 마시고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 (이덕승)



## 뜻 깊은 가족 한국여행

조동준 (64, 남가주)

지난 여름 나의 가족 12명이 함께 처음으로 한국여행을 하고 왔다. 짧은 일주일동안 서울 시내관광, 경주 1박 2일 그리고 고향 부산을 둘러보고 왔는데 나에게서는 진정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다. 금년 여름이면 이곳 미국에 들어온 지가 꼭 50년이 되는데, 매년 혼자 아니면 아내와 함께 다녔지만 이번처럼 12명의 온 가족이 함께 나간 적은 처음이다. 총각으로 입국해서 벌써 식구가 12명이나 된 셈이다. 딸 셋에, 사위가 셋이고 손자 둘, 손녀 두 명해서 12명이 되었다. 백인 사위 두 명에 중국에서 온 한국 사위해서 국적이 다양하나, 다행히도 모두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문화에 호감을 가지고 잘 살아오고 있는데, 사위 세 사람 모두 한국을 가본 적이 없는 처지라 항상 한국을 소개할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지내왔었다 손자와 손녀는 말할것도 없지만 딸들과도 함께 한국을 여행해 본적도 없었다. 드디어 다리가 떨리는 이제야 이런 여행계획을 했더니,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어쨌거나, 이 여행을 끝내고 나니 어떻게나 마음이 후련한지 모르겠다. 속된 이야기로 이제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다.

나와 아내를 제외 하고는 모두가 영어가 그들의 first language이고 한국말

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 우선 여행 안내자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구했다. 마침 아는 사람이 영어를 구사하는 여행사를 하고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여행안내자는 호텔과 여행계획을 짜주며, 25인승 미니버스도 준비하고 식당까지 준비해주고 있었다. 서울시내 관광과 경주로 이동은 이 버스로 쉽게 할 수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때 6년을 서울서 생활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한국이 아니, 서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해 버렸기에 한국 말을 하는 처지기는 하지만 외국사람으로 전락했고 도움이 되는 지식이 전혀 없었다. 이곳과 같이 자동차를 가진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때는 항상 물어서 움직이는 셈인데 매번 친절하 사람도 만나기도 쉽지 않는 일이었다. 다행히도 반세기란 세월동안 조국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온 나라이기에 한국을 손주들에게 소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자랑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손주들에게는 바로 여기가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살았던 old home country이라고 소개할 때는 내 어개가 어색해지는것 같았다. 하지만 손자들은 이제는 왜 할아버지가 broken English를 쓰고 있는지를 짐작했으리라 생각이 된다.

부산에는 아직도 여동생들이 살고 있고, 싱싱한 사시미며 해산물들 많이 먹을수 있어서, 사위들이 기다리던 곳이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머물면서 근년에 미국 Manhattan이 무색하게 높은 아파트촌으로 변모한 새 모습을 분수 있었다. 조선비치호텔에 머물면서, 어

릴적 내가 놀던 해운대 비치 모래사장에서 손자들이 노는 모습을 보니 새삼 감개무량하기도 했다.

이번 한국여행은 사위들과 손자들이 함께 모두 즐기는 여행으로 이어졌다. 일단 나의 한국소개가 끝나고, 모두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나에게서는 한국을 떠나오기전 또 하나의 할 일이 생각이 났다. 일생을 통해서 가장 좋은 친구 세 사람이 모두 이곳 한국에서 여릴 적에 만난 친구들이다. 순박하고 청순했던 십대 청년기에... 이곳 미국에도 골프도 같이 치고 식당에도 함께 가는 친구들이야 있지만, 의기투합하는 멋있는 친구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50년 전에 떠난 한국, 이제 마지막 찬스가 될 수도 있는 이들과의 추억을 또 한 번 되새기고 싶었다. 이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님을 체감할 수 있었다.

첫째 친구는 아직도 부산에 살고 있는데, 중학교 일학년 때 만나서 일년 사귀었는데, 집안이 어려워 고등학교는 국립체신고등학교로 갔기에 장년이 되고서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후 매년 고향 부산을 찾을 때마다 찾아가서 만났다.

두번째 친구는 국민학교 삼학년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는 중학교 때 학생회장, 고등학교 학생회장을 했고, 친구간의 의리와 leadership이 강해서 대통령까지도 할 줄 알았다. 국회의원 여러 번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7년 전부터 파킨슨 병과 치매로 투병하며 최근에는 혼자 약도 먹을수 없을 정도로 일생의 말년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 우리들의 우정은 태평양을 오고가면서, 거리를 모르고 나누어 왔기에,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더 보아야겠다 생각하며, 하루밤을 같이

보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간신히 나를 알아보고서, 인생이 서러운지 그의 두 뺨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세 번째 친구는 이미 세상을 33년 전에 떠난 친구인데, 내내 반장을 해오다가, 집안이 어려워져서, 일반 대학은 못가고, 육군사관학교로 갔는데, 33년 전 압으로 대령때 세상을 떠났다. 그 친구의 미망인을 동반하고 32년 전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았던 적이 있었다. 그 친구가 새삼 무척도 보고 싶어서, 이번에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가서, 묘지 앞에서 한동안 추억을 되새기다가 떠나왔다.



이런 좋은 친구들은 청년기에 만난 오래된 친구들이다. 이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삭막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긴다.

팔십을 내다보는 나이에 이르니, 친구들도 점점 멀어져 가며, 한국도 생각에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어쨌거나, 이번 한국여행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많은 여행으로 나의 추억에 남아있다.

## Hello, 'Carpe diem'

- 지난 겨울애기 하나

이홍빈 (63, 대뉴욕)



(올해도) 같이 떠나 / 한겨울  
아내는 딸네를 / Denver로  
나는 (real) GOLF를 / Orlando로

잘 갔오/나도 무사히 왔오  
애들은 다 어엿디까  
우린 방 잡고 나와/저녁 맛있게 마치고 막 들어섰네  
...

아내는  
하늘 맑고높구 따라높아  
머리 멍한 Colorado에

나는  
햇볕종구 구름도 좋구  
신통스레 밤비오는 Florida에

애미는  
마주한 딸과 왜 어차피 다투구 다투서  
특하면 싸워도 그래두 좋구

나는  
마주한 친구들 매번 뻔한 애기구 애기여서  
금방 다 동이나도 그래두 좋구

할미는 그새 그 열성/그런 행복  
외동손주 피아노에 테니스에 스키에  
아하 그참에 밀린 '한글'복습에 화알짝 기쁘구

나는 번갈아 기진/부디 허리만 괜찮아라  
하루 두 라운드 담날은 한 라운드  
아뭇데 뻔질난 오줌줄 발 등 좀더 넘구/  
'드라이브' 백오십 겨우 넘구  
...

이 겨울두 같이와 공항서/대충 볼대이는 시늬 건성 빠이  
아내는 딸네로  
나는 친구한테로

올해만 갈아라/겨울계 신나게 우리  
아침안개가 금방햇살이 석양구름이/  
우리 녹초루 금새 하루 뭘 먹을까 우리  
오늘로 있어라/세월들구 우리 머물구,  
뭘 마실까 우리 오늘

주: 'Carpe diem': (L. 'Seize the day'),  
Enjoyment of the present, without concern for the future.

## 죽음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경책)

김주평 (68, 버지니아)

며칠 전 지인 몇 사람이 모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 죽음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사전을 찾아보면 "죽다" 하는 단어를 "돌아 간다" 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어디로 간단 말인가?  
우리는 의학적으로 볼 때 무에서 창조된 것은 아니고 부모의 생명의 반반이 합하여 만들어진 복합체인 것임을 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닌 새로운 생명체(육체와 영)인 것이다. 그와같이 우리의 아이들도 우리 부부의 반반이 참여한 새로운 생명체가 아닌가! 진정으로 나는 온 세상에 하나 뿐인 것이다.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나의 생명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생명은 영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내 몸의 기능인 듯하며 내 생명과는 다르다. 그럼으로 내 생명이 죽을 때 내 마음도 같이 죽는 듯하다.

그렇다면 나의 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지의 세계는 우리에게 공포를 불

러일으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한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바로 죽음이 그들 중 가장 심각한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우리에게서는 죽음 다음을 체험한 산 증인이 없다. 그래서 확신을 할 수 있는 답이 없다. 물론 각자의 믿음은 다를 수 있지만 내 개인이 아는 유일한 증거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늘 나라로 "돌아 간다"고 말했다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 뿐이다.

믿음이란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Believing without Proof" 라고 쓰여있다. 다시 풀이하면 모든 일에서 증거를 꼭 원한다면 믿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도 된다.

나에게 믿음이란 이해하기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믿음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높은 건물 옆에 걸어가거나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누가 어떻게 언제 잘 지은 건물인지는 모르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다. 구불구불 도는 산길에서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것도 다가오는 차들의 운전자를 서로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물도 독이 들어 있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먹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이라는 미지의 공포에서 벗어나

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이 다시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 간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증거가 없어도 되는 참다운 믿음인 것이다. 믿음이란 원래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설혹 증거가 없어도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에게 어머니의 성경책은 내 죽음에 대한 믿음의 주춧돌인 것이다. 어머니의 성경책은 1951년 발간된 것으로 어머니의 손때가 잔뜩 묻어 있고 빨간 줄들이 많이 쳐져있다. 각 페이지마다 깨알 같은 노트가 뺨뺨이 적혀있다. 수 십년 전 장로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던 날 어머니가 주신 귀중한 선물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느끼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나 또한 굳게 믿는다.



#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고객중심/인재존중/혁신추구/사회공헌/상호협력  
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더 큰 내일을 열어갑니다.

**SNUH**  **서울대학교병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